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목적

청소년의 폭력문제는 어제 오늘에 발생한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학생들간에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이 새삼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그 발생빈도의 증가와 질적인 심각성 때문일 것이다. 1990년 이후 청소년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범죄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고 학생들에 의한 범죄 중에는 특히 폭력범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 의한 폭력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최근 학생들간의 다툼 끝에 상대학생을 살해한 경우와 같이 학생들간의 갈등이 단순한 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 까지 이르기기도 하고 단 얼마의 돈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돌이대기도 하며 심지어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사건들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이렇게 양적 질적으로 심화되자 학교 선배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자녀를 둔 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뜻을 모은 시민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의 모임’을 결성해 스스로 자신의 자녀와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게 되었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폭력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들 청소년 중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나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없는 청소년들 사이에 그 의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폭력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연령비례로 청소년을 포함해 조사한 바가 있고<sup>1)</sup>, 또한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의 일부로써 폭력범죄 피해나 가해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으나<sup>2)</sup>, 청소년의 폭력 의식과 실태를 동시에 조사해 그 관계를 알아 보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폭력에 관한 가치관이나 생각을 알아봄으로써 청소년들이 폭력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의식 전반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육환경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아 보기 위해 일반적인 학교폭력 발생실태와 그들이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같은 학교 학생으로 부터 직접 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력 피해를 가하고 있는 실태를 자기보고를 통해 조사하고 이들 피해나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사이에 폭력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학교폭력 피해집단 및 가해집단의 특성을 밝혀내 피해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 피해방지대책과 가해청소년을 위한 지도대책을 수립하고, 폭력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의식차이에 따라 그들 각각에게 적합한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있어 보조자료로 기여하고자 한다.

- 
- 1) '김준호, 김선애(1992), 한국인의 폭력에 관한 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폭력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어 나이가 어릴수록 폭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2) 김중국(1974), 청소년의 피해실태 조사연구,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김준호 외 3인(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폭력에 관한 의식과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와 폭력적인 행동의 실제적인 경험 간의 관계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제인 ‘폭력’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폭력이란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의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유형에 따라 대체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적 폭력과 분노나 공포, 좌절 등이 행동으로 표출된 표현적 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한편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즐거움이나 뭔가를 얻고자 하는 공격적 폭력과 이러한 공격에 맞서기 위한 방어적 폭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Jenkins & Gowdey, 1981 : 3).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도구적 폭력이나 표현적 폭력, 공격적 폭력, 방어적 폭력 등의 개념들이 모두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의식조사와 실태조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폭력’의 개념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의식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폭력’은 비교적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폭력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성폭력이나 훈육을 위한 체벌 등 구체적인 폭력 유형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특정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실태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폭력’은 의식조사에서와는 달리 구체적인 폭력 유형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범위는 모든 폭력 유형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

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제한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10가지 유형만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폭력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긍정적인 태도, 폭력사용의 효용성이나 필요성, 폭력의 범위 등에 관한 의식을 알아 본다.
- 2) 청소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발생실태를 폭력유형과 폭력대상별로 나누어 파악한다.
- 3)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 10가지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경험 여부와 그 피해 정도를 알아 본다.
- 4)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 10가지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경험 여부와 그 가해 정도를 알아 본다.
- 5) 폭력의식 및 폭력경험에 대해 각각 청소년의 대표적인 지위 비행인 흡연 및 음주 경험과의 관계를 알아 본다.
- 6)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 10가지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다.
- 7) 폭력에 관한 부정 또는 긍정적인 의식과 실제적인 폭력피해 및 가해 경험 간의 관계를 알아 본다.

## 제 2 장 연구방법



## 1. 설문지 구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폭력의식에 관한 질문 28문항,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발생실태에 관하여 폭력유형별로 9문항, 폭력대상별로 6문항, 폭력피해 경험에 관한 질문 10문항, 폭력가해 경험에 관한 질문 10문항,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질문 3문항, 폭력씨름에 관한 질문 2문항,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 9문항 등 총 7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들은 폭력씨름 및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설문 문항들 중에서 이 연구의 가장 주요한 관심이 되고 있는 폭력 의식과 폭력 피해 및 가해에 관한 문항들이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폭력에 관한 의식

폭력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은 김준호, 김선애(1992)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여 구성하였는데, 추상적인 폭력 전반에 대해 부정하는 문항과 폭력의 효용성을 설명하는 문항, 폭력으로 볼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폭력유형에 관한 문항, 허용될 수 있는 폭력에 관한 문항 등 28문항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설문지로 측정된 후 이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이 8개 나타났다. 각 요인은 전체 분산의 15.4%, 9.0%, 6.8%, 5.6%, 4.3%, 4.0%, 3.8%, 3.6%를 설명하고 있고, 8요인은 전체 분산의 52.4%를 설명한다. 그러나 마지막 8요

인은 1개 문항만을 포함하고 있고 설명력도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7개의 의미있는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1> 폭력의식에 관한 요인분석

| 문항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요인6  | 요인7  |
|------------------------------------------|------|------|------|------|------|------|------|
|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71  | -.05 | .02  | -.02 | -.03 | -.13 | .07  |
| 아무리 결과가 좋을 지라도 폭력의 사용은 합리화될 수 없다         | .69  | .03  | .19  | .09  | .07  | -.15 | -.05 |
| 폭력을 사용하면 일이 더욱 복잡해진다.                    | .64  | -.01 | .12  | .02  | .06  | .25  | -.03 |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59 | .16  | .17  | .00  | .15  | .26  | -.09 |
|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뿐이다.                    | .54  | .14  | .36  | .11  | -.07 | -.02 | -.09 |
| 폭력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54  | .05  | .14  | .16  | -.05 | -.04 | -.12 |
|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은 학생을 때릴 수 있다     | -.04 | .76  | -.03 | .06  | -.01 | .01  | -.00 |
| 자식을 바로 키우려면 매를 아껴서는 안된다.                 | .05  | .73  | -.08 | -.08 | .00  | .13  | .08  |
|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때리는 매는 폭력이라 볼 수 없다.         | .01  | .70  | -.01 | .01  | .13  | -.09 | .04  |
| 아이들을 야단치기 위해 때리는 것도 폭력이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 .04  | -.58 | .43  | -.07 | .06  | .02  | .15  |
|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매를 때리기 보다는 말로 타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11  | -.23 | .60  | -.01 | -.03 | .00  | -.01 |
| 질서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 .12  | .13  | .50  | .18  | -.21 | -.28 | .01  |
| 폭력은 사회문제이므로 가족간의 폭력 사용도 방치해서는 안된다.       | .14  | -.19 | .48  | .12  | -.28 | .23  | -.07 |
|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은 부모를 때려서는 안된다.               | .11  | -.12 | .41  | .12  | .09  | .05  | -.14 |
|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라고 볼 수 없다.         | .29  | .13  | .37  | .35  | -.08 | -.13 | -.04 |

| 문항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요인6  | 요인7  |
|-------------------------------------------|------|------|------|------|------|------|------|
| 심한 욕설이나 저주와 같은 폭언도 폭력에 해당한다.              | 10   | .03  | -.01 | .73  | -.07 | .01  | -.19 |
| 공공질서를 위반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도 일종의 폭력이다.      | 09   | -.01 | .05  | .70  | -.02 | .04  | .26  |
| 길에서 지나가는 여자에게 음란한 말이나 몸짓으로 희롱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 06   | .06  | .21  | .59  | -.18 | -.08 | .00  |
| 가까운 사람끼리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             | -.09 | .10  | .13  | -.10 | .66  | -.16 | .14  |
| 부부간의 폭력사용은 사랑싸움이므로 말릴 필요가 없다.             | -.02 | .05  | -.29 | -.05 | .65  | .02  | -.04 |
| 나와 가까운 사람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 구타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    | 01   | -.12 | -.08 | -.09 | .61  | .31  | -.05 |
| 가족간의 폭력은 그 가정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 -.04 | .22  | .08  | -.25 | .40  | .06  | .20  |
| 법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 -.09 | -.03 | -.05 | .07  | -.01 | .73  | .01  |
|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38 | .33  | .10  | -.12 | .06  | .51  | .13  |
| 결과가 좋다면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 -.43 | .00  | .01  | -.14 | .15  | .46  | .08  |
|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데는 폭력이 대화보다 낫다.               | -.10 | -.00 | -.05 | .07  | -.01 | .02  | .81  |
| 심한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는 폭력이라고 볼 정도의 심한 처벌이 필요하다. | .05  | .22  | -.24 | -.22 | -.08 | .31  | .39  |
| 교유값                                       | 4.31 | 2.51 | 1.89 | 1.55 | 1.20 | 1.13 | 1.05 |

첫째요인은 대체로 폭력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된 문항들이 묶였는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거나 ‘폭력을 사용하면 일이 더욱 복잡해 진다’와 같이 폭력 사용을 부정하는 이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폭력에 대

한 보편적인 거부」라고 명명하였다.

둘째요인은 훈육을 위한 폭력사용에 관한 의식들이 묶였는데, 부모나 교사의 체벌, 일반적인 훈육을 위한 매를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훈육을 위한 폭력허용」이라 명명하였다.

세째요인은 첫째요인과 같이 폭력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들로 묶였는데, 차이가 있다면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매를 때리기 보다는 말로 타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라고 볼 수 없다’와 같이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나 폭력거부의 이유가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거부」라고 명명하였다.

네째요인은 폭언, 질서위반, 성희롱과 같이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행태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폭력의 범위」라고 명명하였다.

다섯째요인은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 대한 폭력과 가까운 사람을 때린 사람에 대한 보복성 폭력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항들로 묶여 있어 「친지에 대한 폭력허용」이라 명명하였다.

여섯째요인은 폭력사용의 효용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묶여 있는데, ‘법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일이 있다’거나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와 같이 폭력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일 때도 있다고 하여 폭력의 효용성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폭력의 효용성」이라 명명하였다.

일곱째요인은 폭력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데는 폭력이 대화보다 낫다’거나 ‘심한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는 폭력이라고 볼 정도의 심한 체벌이 필요하다’와 같이 적극적으로 폭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폭력의 필요성」이라 명명하였다.

## 2)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청소년의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을 알아 보기 위해 김준호 외 3인(1991)과 박계현(1994)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여 학교 안이나 학교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는 폭력유형들을 분류하였는데, 친구로 부터의 또는 친구에게의 폭언, 구타, 위험한 물건던지기 등 친한 친구로 부터 당하거나 가해한 경험 3문항과 폭언, 물건던지기, 금품갈취, 협박, 단독폭행, 집단폭행, 폭력씨클 가입강요 등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잘 알지 못하는 학생으로 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잘 알지 못하는 학생에게 가해한 경험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설문지로 측정한 후 이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피해 경험의 경우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이 2개 나타났다. 각 요인은 전체 분산의 29.6%, 12.9%를 설명하고 있고, 2요인은 전체 분산의 42.6%를 설명한다.

첫째요인은 교내의 잘 모르는 학생들로 부터 당한 피해들로만 묶였는데 10가지 폭력 유형중에서 상대적으로 그 행태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폭력피해 유형 1」이라 명명하였다.

둘째요인은 친구로 부터 당한 피해와 교내의 잘 모르는 학생으로 부터의 폭언 피해가 묶였는데 10가지 폭력 유형중에서 상대적으로 그 행태나 피해 정도가 덜 심각한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폭력피해 유형 2」라고 명명하였다.

가해 경험의 경우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이 2개 나타났다. 각 요인은 전체 분산의 38.9%, 14.1%를 설명하고 있고, 2요인

은 전체 분산의 52.9%를 설명한다.

첫째요인은 교내의 잘 모르는 학생에 대한 가해들로만 묶였는데 10가지 폭력 유형중에서 상대적으로 그 행태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폭력가해 유형 1」이라 명명하였다.

둘째요인은 친구에 대한 가해와 교내의 잘 모르는 학생에 대한 폭언 가해, 학교기물 파괴가 묶였는데 10가지 폭력 유형중에서 상대적으로 그 행태나 피해 정도가 덜 심각한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폭력가해 유형 2」라고 명명하였다.

〈표 2〉 폭력경험에 관한 요인분석

| 피해경험      | 요인1  | 요인2  | 가해경험       | 요인1  | 요인2  |
|-----------|------|------|------------|------|------|
| 협박피해      | .67  | .12  | 단독폭행 가해    | .85  | .15  |
| 폭력씨클 가입강요 | .65  | -.06 | 집단폭행 가해    | .78  | .15  |
| 금품갈취 피해   | .63  | .21  | 금품갈취 가해    | .78  | .10  |
| 단독폭행 피해   | .61  | .16  | 협박 가해      | .78  | .13  |
| 집단폭행 피해   | .59  | .03  | 물건던지기 가해   | .56  | .38  |
| 물건던지기 피해  | .54  | .27  | 친구에게 폭언    | -.03 | .72  |
| 친구의 폭언    | .06  | .72  | 친구를 구타     | .22  | .65  |
| 친구의 물건던지기 | .10  | .68  | 친구에게 물건던지기 | .18  | .64  |
| 친구의 구타    | .07  | .67  | 학교기물 파괴    | .09  | .56  |
| 폭언 피해     | .34  | .41  | 폭언 가해      | .35  | .52  |
| 고 유 값     | 2.96 | 1.29 | 고 유 값      | 3.88 | 1.40 |

## 2. 조사과정 및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해 서울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표집대상으로 중학교 3개 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2개 학

교, 실업계 고등학교 1개 학교 등 6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총 636명을 표집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1995년 7월 10일 부터 19일 까지 10일간이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627부였다. 그 중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18부를 제외한 609부에 대하여 SPSS/PC+(ver. 3.0)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이루어 졌다.

첫째, 청소년의 폭력 의식에 관한 분석으로는 전반적인 경향을 알기 위해 각 문항별로 빈도분석(frequency)을 하였고, 각 문항들을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유형을 알아본 후 분류된 유형 및 개별문항에 대해 집단간 차이를 t검증(t-test)을 통해 알아 보았다.

둘째,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발생상태에 대한 분석으로 빈도분석(frequency)과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째, 청소년의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에 대한 분석으로 빈도 분석(frequency)과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들을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유형을 알아본 후 분류된 유형에 대해 집단간 차이를 t검증(t-test)을 통해 알아 보았다.

네째,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과 폭력 경험과의 관계 및 관련요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으로는 폭력 의식과 지위비행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t검증(t-test)을, 폭력 경험과 지위비행의 관계 및 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상관관계(correlation)를, 폭력 의식과 폭력 경험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 조사에서 표집한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49.1%, 여자는 50.9%이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48.8%, 고등학생이 51.2%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이 67.0%, 실업계 학생이 33.0%이다. 경제수준은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중, 100만원 미만은 하로 분류하여 ‘상’인 경우는 33.3%, ‘중’인 경우는 52.0%, ‘하’인 경우는 14.7%이다. 또한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23.0%이고 음주 경험이 있는 사람은 51.7%이다.

그 밖에도 가족구조,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 환각제 사용여부, 단체활동이나 음성서클 활동여부 등에 관해 알아 보았으나 집단별 의식 차이가 별로 없거나 경험률이 낮아 다음의 <표 3>의 특성만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 (단위: %, 명)

| 변 인      | 남 자        | 여 자        | 전 체        |
|----------|------------|------------|------------|
| 교급 중 학 교 | 48.1 (143) | 51.9 (154) | 48.8 (297) |
| 고등학교     | 50.0 (156) | 50.0 (156) | 51.2 (312) |
| 계열 인 문 계 | 49.3 (103) | 50.7 (106) | 67.0 (209) |
| 실 업 계    | 51.5 ( 53) | 48.5 ( 50) | 33.0 (103) |
| 소득 상     | 47.9 ( 91) | 52.1 ( 99) | 33.3 (190) |
| 중        | 52.9 (157) | 47.1 (140) | 52.0 (297) |
| 수준 하     | 40.5 ( 34) | 59.5 ( 50) | 14.7 ( 84) |
| 흡연 있다    | 69.6 ( 96) | 30.4 ( 42) | 23.0 (138) |
| 경험 없다    | 43.3 (200) | 56.7 (262) | 77.0 (462) |
| 음주 있다    | 54.7 (170) | 45.3 (141) | 51.7 (311) |
| 경험 없다    | 43.1 (125) | 56.9 (165) | 48.3 (290) |
| 전 체      | 49.1 (299) | 50.9 (310) | 100.0(609) |

## 제 3 장   결과 및 해석



## 1.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 1) 청소년 폭력의식의 일반적 경향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폭력 전반에 대해 폭력을 거부하는 문항, 폭력의 범위에 관한 문항, 폭력사용의 효용성에 관한 문항, 허용될 수 있는 폭력에 관한 문항 등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을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폭력 의식에 관한 문항별 빈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력에 대해 거부적인 문항에 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동의 정도에 있어서는 문항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폭력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동의 86.3%, 기각 3.3%), ‘질서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동의 84.0%, 4.3%),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뿐이다’(동의 79.0%, 기각 6.2%),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라고 볼 수 없다’(동의 78.6%, 기각 8.8%),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매를 때리기 보다는 말로 타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동의 72.4%, 기각 7.4%) 등 폭력 보다는 법이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나 폭력 사용의 부정적인 일면을 부각시켜 선택적 가치에 의해 폭력을 거부하는 문항에 관해서는 조사대상 청소년의 절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면 일이 더욱 복잡해 진다’(동의 63.2%, 기각 8.6%), ‘폭력은 사회문제이므로 가족간의 폭력 사용도 방치해서는 안된다’(동의 59.8%, 기각 14.1%),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은 부모를 때려서는 안된다’(동의 59.8%, 기각 26.6%),

‘아무리 결과가 좋을 지라도 폭력의 사용은 합리화될 수 없다’(동의 55.1%, 기각 19.6%)와 같이 폭력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절대적인 폭력거부에 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동의 38.9%, 기각 27.5%)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청소년이 조금 많지만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도 적지 않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대부분 폭력에 대해 거부하는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폭력을 나쁜 것으로 보는 절대적인 거부라기 보다는 폭력 사용에 비해 다른 뭔가가 더 낫다고 하는 상대적인 거부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자식의 부모구타 거부’에 관한 문항의 경우 비록 동의하는 청소년이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훨씬 많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효사상을 생각할 때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도 26.6%에 이르고 있는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폭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폭언, 공공질서 위반, 성희롱을 폭력으로 볼 것인지를 알아 보았는데, 세가지 모두 폭력으로 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길에서 지나가는 여자에게 음란한 말이나 몸짓으로 희롱하는 것은 성폭력이다’(동의 86.4%, 기각 4.8%)라는 문항에 관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심한 욕설이나 저주와 같은 폭언도 폭력에 해당한다’(동의 72.1%, 기각 10.4%)는 문항의 동의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공공질서를 위반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도 일종의 폭력이다’(동의 59.0% 기각 11.4%)라는 문항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폭력의 범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폭언이나 성희롱, 질서위반 등 심리적인 불쾌감까지도 폭력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사용의 효용성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청소년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이 많았는데, 특히 ‘심한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는 폭력이라고 볼 정도의 심한 처벌이 필요하다’(동의 16.4%, 기각 63.0%)라는 문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데는 폭력이 대화보다 낫다’(동의 23.4%, 기각 59.6%), ‘결과가 좋다면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동의 23.3%, 기각 51.9%),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동의 18.7%, 기각 51.1%),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동의 18.6%, 기각 50.4%)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청소년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법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동의 35.7%, 기각 39.0%)라는 문항의 경우는 동의하는 청소년과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대부분 폭력 사용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특히 자신들의 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와 같이 건전한 의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비록 소수라고 해도 폭력 사용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청소년이 있어 일부청소년의 경우 폭력 사용을 합리화할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청소년도 적지 않은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 문화와 법에 대한 불신감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허용될 수 있는 폭력으로 훈육을 위한 폭력 사용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폭력 사용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훈육을 위한 폭력에 대해서는 동의와 비동의의 비율이 비슷하

게 나타났으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폭력은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이 훨씬 많았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은 학생을 때릴 수 있다’(동의 45.8%, 기각 33.3%)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자식을 바로 키우려면 매를 아껴서는 안된다’(동의 38.6%, 기각 27.6%)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 볼 수 없다’(동의 38.5%, 기각 34.0%)라는 문항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또 ‘아이들을 야단치기 위해 때리는 것도 폭력이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동의 37.9%, 기각 40.2%)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청소년보다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이 더 많아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훈육을 위한 매도 폭력이라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폭력 사용은 사랑싸움이므로 말릴 필요가 없다’(동의 4.6%, 기각 78.1%)나 ‘나와 가까운 사람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 구타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동의 8.2%, 기각 72.6%)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고, ‘가족간의 폭력은 그 가정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동의 15.8%, 기각 62.4%)나 ‘가까운 사람끼리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동의 13.4%, 기각 61.6%)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폭력 사용이나 폭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훈육을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해서는 다소 허용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폭력의식의 문항별 분포

(단위 : %)

| 문항                                       | 전혀<br>동의하지<br>않는다 | 동의하지<br>않는다 | 그저<br>그렇다 | 동의하는<br>편이다 | 아주<br>동의<br>한다 | 사례수 |
|------------------------------------------|-------------------|-------------|-----------|-------------|----------------|-----|
| 폭력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8                | 2.5         | 10.3      | 42.0        | 44.3           | 609 |
| 질서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 1.0               | 3.3         | 11.6      | 30.2        | 53.8           | 602 |
|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뿐이다                     | 1.7               | 4.5         | 14.9      | 34.0        | 45.0           | 605 |
|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라고 볼 수 없다          | 4.5               | 4.3         | 12.6      | 31.2        | 47.4           | 605 |
|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매를 때리기 보다는 말로 타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8                | 6.6         | 20.2      | 41.0        | 31.4           | 608 |
| 폭력을 사용하면 일이 더욱 복잡해 진다                    | 2.8               | 5.8         | 28.3      | 34.9        | 28.3           | 608 |
| 폭력은 사회문제가므로 가족간의 폭력사용도 방지해서는 안된다         | 4.4               | 9.7         | 26.1      | 31.4        | 28.4           | 609 |
|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은 부모를 때려서는 안된다                | 10.5              | 16.1        | 13.6      | 11.2        | 48.6           | 609 |
| 아무리 결과가 좋을 지라도 폭력의 사용은 합리화될 수 없다         | 3.3               | 16.3        | 25.3      | 31.3        | 23.8           | 608 |
|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6.1               | 21.4        | 33.6      | 21.6        | 17.3           | 602 |
| 길에서 지나가는 여자에게 음란한 말이나 몸짓으로 희롱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 3.0               | 1.8         | 8.9       | 26.5        | 59.9           | 608 |
| 심한 욕설이나 저주와 같은 폭언도 폭력에 해당한다              | 3.8               | 6.6         | 17.5      | 38.6        | 33.5           | 606 |
| 공공질서를 위반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도 일종의 폭력이다      | 3.3               | 8.1         | 29.7      | 34.6        | 24.4           | 607 |

| 문항                                              | 전혀<br>동의하지<br>않는다 | 동의하지<br>않는<br>편이다 | 그저<br>그렇다 | 동의하는<br>편이다 | 아주<br>동의<br>한다 | 사례수 |
|-------------------------------------------------|-------------------|-------------------|-----------|-------------|----------------|-----|
| 심한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br>게는 폭력이라고 볼 정도의<br>심한 처벌이 필요하다 | 32.5              | 30.5              | 20.7      | 11.6        | 4.8            | 604 |
|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데<br>는 폭력이 대화보다 낫다                  | 32.5              | 27.1              | 17.1      | 12.2        | 11.2           | 609 |
| 결과가 좋다면 폭력이 나쁜<br>것만은 아니다                       | 25.6              | 26.3              | 24.8      | 17.2        | 6.1            | 605 |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br>한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해<br>도 무방하다      | 21.9              | 28.5              | 31.0      | 14.8        | 3.8            | 607 |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폭력<br>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23.0              | 28.1              | 30.2      | 16.1        | 2.6            | 609 |
| 법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폭<br>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 17.9              | 21.1              | 25.2      | 26.9        | 8.8            | 602 |
|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가르<br>치기위해 선생님은 학생을<br>때릴 수 있다      | 15.1              | 18.2              | 20.9      | 35.6        | 10.2           | 609 |
| 자식을 바로 키우려면 매를<br>아껴서는 안된다                      | 10.6              | 17.0              | 33.9      | 25.0        | 13.6           | 605 |
| 아이들을 가르치기위해 때<br>리는 것은 폭력이라 볼 수<br>없다           | 15.5              | 18.5              | 27.4      | 27.6        | 10.9           | 605 |
| 아이들을 야단치기 위해 때<br>리는 것도 폭력이므로 허용<br>해서는 안된다     | 10.4              | 29.8              | 32.0      | 15.7        | 12.2           | 607 |
| 부부간의 폭력사용은 사랑싸<br>움이므로 말할 필요가 없다                | 43.4              | 34.7              | 17.3      | 2.8         | 1.8            | 608 |
| 나와 가까운 사람을 때린 사<br>람을 찾아내 구타하는 것은<br>폭력이 아니다    | 35.9              | 36.7              | 19.2      | 5.4         | 2.8            | 608 |
| 가족간의 폭력은 그 가정의<br>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br>여할 필요가 없다   | 28.5              | 33.9              | 21.9      | 11.0        | 4.8            | 608 |
| 가까운 사람끼리 때리는 것<br>은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                | 31.8              | 29.8              | 25.0      | 9.4         | 4.0            | 604 |

## 2) 청소년 폭력의식의 집단별 차이

폭력에 관한 의식의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의식 유형 7가지에 대해 교급과 성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각 유형 속에서 부정적으로 질문된 문항을 반대로 재부호화하여 t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력에 대한 보편적 거부」로 분류된 유형에 대해서는 집단간에 별 차이없이 매우 동의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별 문항에 있어서는 총 6문항 중 2문항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총점 5에 대해 남 4.19, 여 4.34)는 문항과 ‘아무리 결과가 좋을 지라도 폭력의 사용은 합리화될 수 없다’(총점 5에 대해 남 3.45, 여 3.65)는 문항에 관해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좀더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에 대한 구체적 거부」로 분류된 유형에 대해서는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남녀모두 폭력사용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특히 남자청소년(범위 5-25에 대해 19.33)보다는 여자청소년(범위 5-25에 대해 20.13)이 폭력에 대해 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는 총 5문항 중 3문항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질서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총점 5에 대해 남 4.18, 여 4.37)는 문항과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매를 때리기 보다는 말로 타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총점 5에 대해 남 3.83, 여 4.06),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라고 볼 수 없다’(총점 5에 대해 남 3.99, 여 4.21)라는 문항에 관해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더 동의하고 있어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폭력사용에 대해 거부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 폭력에 대한 구체적 거부

| 집 단 |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남   | 자 | 19.33 | 3.45 | 299 | $t = -2.94$ |
| 여   | 자 | 20.13 | 3.22 | 310 | $p = .003$  |

「폭력의 범위」로 분류된 유형에 있어서도 성별로 차이를 보여 남자청소년(범위 3-15에 대해 11.45)보다는 여자청소년(범위 3-15에 대해 12.42)이 폭력의 범위를 더욱 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3문항 중 1문항에서 교급간의 차이가 유의했고 2문항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한 욕설이나 저주와 같은 폭언도 폭력에 해당한다’라는 문항에서 총점 5에 대해 중학생은 3.78, 고등학생은 4.01을 나타냈고 남자청소년은 3.76, 여자청소년은 4.03을 나타내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또한 여자가 남자에 비해 폭언의 폭력성을 더욱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길에서 여자에게 음란한 말이나 몸짓으로 희롱하는 것은 성폭력에 해당한다’(총점 5에 대해 남 4.04, 여 4.70)라는 문항에 관해서도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더 동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는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 더 폭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폭력의 범위

| 집 단 |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남   | 자 | 11.45 | 2.32 | 299 | $t = -5.40$ |
| 여   | 자 | 12.42 | 2.09 | 310 | $p = .000$  |

「폭력의 효용성」으로 분류된 유형에 있어서는 교급과 성별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범위 3-15에 대해 중학생은 7.56, 고등학생은 8.10이고, 남자청소년은 8.12, 여자청소년은 7.56으로 나타나 모든 집단이 폭력 사용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지만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폭력의 효용성에 대해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3문항 중 1문항에서 교급 및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법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문항에서 총점 5에 대해 중학생은 2.65, 고등학생은 3.01을 나타냈고 남자청소년은 2.95, 여자청소년은 2.74를 나타내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또한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폭력의 문제 해결능력을 더욱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폭력 사용의 효용성이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다고 유동적으로 인정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폭력 사용의 효용성이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폭력의 필요성」으로 분류된 유형과 그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없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아 동의하는 청소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폭력의 효용성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교급 중 학 생 | 7.56 | 2.61 | 297 | $t = -2.54$ |
| 고등학생     | 8.10 | 2.59 | 312 | $p = .011$  |
| 성별 남 자   | 8.12 | 2.67 | 299 | $t = 2.60$  |
| 여 자      | 7.56 | 2.53 | 310 | $p = .009$  |

「훈육을 위한 폭력허용」으로 분류된 유형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범위 4-20에 대해 남자청소년은 12.92, 여자청소년은 11.62로 남자는 훈육을 위한 폭력을 허용하는 편이나 여자는 허용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4문항 중 1문항에서 교급간의 차이가 유의했고 3문항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은 학생을 때릴 수 있다’라는 문항에서 총점 5에 대해 중학생은 3.24, 고등학생은 2.92를 나타내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교사의 체벌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학생의 경우 아직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체벌 필요성을 고등학생보다 더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 문항에 대해 남자청소년은 3.30, 여자청소년은 2.86을 나타내 남자는 교사의 체벌을 허용하는 반면 여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식을 바로 키우려면 매를 아껴서는 안된다’(총점 5에 대해 남 3.31, 여 2.93)라는 문항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때리는 매는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총점 5에 대해 남 3.14, 여 2.82)라는 문항에 관해서도 남자청소년은 동의하고 있으나 여자청소년은 동의하지 않고 있어 훈육을 위한 폭력 사용에 있어서도 역시 남자보다는 여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지에 대한 폭력허용」으로 분류된 유형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범위 4-20에 대해 남자청소년은 8.76,

〈표 8〉 훈육을 위한 폭력허용

| 집 단 |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남   | 자 | 12.92 | 3.58 | 299 | t=4.55<br>p = .000 |
| 여   | 자 | 11.62 | 3.47 | 310 |                    |

여자청소년은 8.02로 두 집단 모두 가까운 사람끼리의 폭력 사용이나 가까운 사람이 당한 폭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에 대해 부정적이나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4문항 중 2문항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간의 폭력은 그 가족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항에서 총점 5에 대해 남자청소년은 2.42, 여자청소년은 2.17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부부간의 폭력사용은 사랑싸움이므로 말릴 필요가 없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총점 5에 대해 남자청소년은 2.03, 여자청소년은 1.67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어 여자보다는 남자가 가정폭력에 대해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 폭력에 대해 남녀간에 의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정내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표 9〉 친지에 대한 폭력허용

| 집 단 |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남   | 자 | 8.76 | 2.82 | 299 | t = 3.42 |
| 여   | 자 | 8.02 | 2.48 | 310 | p = .001 |

## 2. 청소년폭력의 발생실태

학교안이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세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발생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폭력유형과 폭력대상에 따라 응답자가

체감하고 있는 발생정도를 알아 보았다. 다음으로서는 응답자가 직접 피해를 입은 경험을 알아 보았고, 마지막으로 응답자가 직접 가해한 경험을 알아 보았다.

## 1) 일반적인 발생실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의 일반적인 폭력 발생실태를 알아 보아 교육환경의 폭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학교안이나 학교 주변에서 발생가능한 폭력의 유형과 인관관계에 대해 응답자가 느끼는 그 발생정도를 5점척도로 물어 보았다.

### (1) 폭력 유형별

여기에서는 폭언, 물건던지기, 금품갈취, 협박, 단독폭행, 집단폭행, 싸움, 패싸움, 교내기물 파괴 등 9가지 유형의 폭력행위를 제시하고 각각의 폭력 유형에 대해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으로 나누어 발생정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은 항상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18.9%, 자주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27.8%로 과반수 가까운 청소년(46.7%)이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폭언의 사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가끔 있다는 청소년도 35.5%나 이르고 있고 전혀 없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6.3%에 불과했다. 따라서 욕이나 저주의 말과 같은 폭언이 교육환경 속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언어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물건던지기’는 항상(3.5%)이나 자주(7.1%)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적으나 가끔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30.8%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여자청소년(자주 있는 편 6.8%)보다는 남자청소년(자주 있는 편 14.5%)의 경우

〈표 10〉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

|         | 전 체   | 전혀없음 | 거의없음 | 가끔있음 | 자주있음 | 항상있음 |
|---------|-------|------|------|------|------|------|
| 빈 도 (명) | 608   | 38   | 70   | 216  | 169  | 115  |
| 비 율 (%) | 100.0 | 6.3  | 11.5 | 35.5 | 27.8 | 18.9 |

〈표 11〉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물건던지기 (단위 : %)

| 집 단 | 전혀없음 | 거의없음 | 가끔있음 | 자주있음 | 항상있음 | 사례수 | 통계치     |
|-----|------|------|------|------|------|-----|---------|
| 전 체 | 20.4 | 38.2 | 30.8 | 7.1  | 3.5  | 607 |         |
| 남 자 | 16.8 | 31.6 | 37.0 | 9.1  | 5.4  | 297 | X=27.12 |
| 여 자 | 23.9 | 44.5 | 24.8 | 5.2  | 1.6  | 310 | p=.0000 |

〈표 12〉 위협하거나 때려서 물건이나 돈 빼앗기 (단위 : %)

| 집 단   | 전혀없음 | 거의없음 | 가끔있음 | 자주있음 | 항상있음 | 사례수 | 통계치     |
|-------|------|------|------|------|------|-----|---------|
| 전 체   | 25.2 | 27.7 | 28.9 | 13.7 | 4.5  | 606 |         |
| 중 학 교 | 22.0 | 25.0 | 30.7 | 17.9 | 4.4  | 296 | X=12.21 |
| 고등학교  | 28.4 | 30.3 | 27.1 | 9.7  | 4.5  | 310 | p=.0158 |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협하거나 때려서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금품갈취’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청소년이 53.0%, 가끔 발생한다는 청소년이 28.9%, 자주 발생한다는 청소년이 18.2%로 나타났다. 중학생(22.3%)의 경우는 고등학생(14.2%)에 비해 자주 발생한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았다.

‘위협하거나 협박하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이 52.2%, 가끔 있다는 청소년이 28.2%, 자주 발생한다는 청소년이 19.6%이다. 이 또한 자주 발생한다고 보는 비율이 중학생(23.0

%)이 고등학생(16.4%)보다 높았다.

〈표 13〉 위협하거나 협박하기

(단위 : %)

| 집 단   | 전혀없음 | 거의없음 | 가끔있음 | 자주있음 | 항상있음 | 사례수 | 통계치     |
|-------|------|------|------|------|------|-----|---------|
| 전 체   | 25.4 | 26.9 | 28.2 | 13.7 | 5.9  | 607 |         |
| 중 학 교 | 21.3 | 24.0 | 31.8 | 16.9 | 6.1  | 296 | X=12.61 |
| 고등학교  | 29.3 | 29.6 | 24.8 | 10.6 | 5.8  | 311 | p=.0134 |

‘폭행’은 단독폭행과 집단폭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때리는 ‘단독폭행’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청소년이 34.4%, 가끔 있다는 청소년이 38.7%, 자주 발생한다는 청소년이 26.9%로 다른 폭력유형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중학생(32.4%)이 고등학생(21.5%)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 남자청소년(36.0%)이 여자청소년(18.0%)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표 14〉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때리는 일

(단위 : %)

| 집 단      | 전혀없음 | 거의없음 | 가끔있음 | 자주있음 | 항상있음 | 사례수 | 통계치     |
|----------|------|------|------|------|------|-----|---------|
| 전 체      | 16.1 | 18.3 | 38.7 | 19.6 | 7.2  | 607 |         |
| 교급 중 학 교 | 13.2 | 15.9 | 38.5 | 24.3 | 8.1  | 296 | X=12.15 |
| 고등학교     | 19.0 | 20.6 | 38.9 | 15.1 | 6.4  | 311 | p=.0163 |
| 성별 남 자   | 13.5 | 12.8 | 37.7 | 24.6 | 11.4 | 297 | X=33.81 |
| 여 자      | 18.7 | 23.5 | 39.7 | 14.8 | 3.2  | 310 | p=.0000 |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는 ‘집단폭행’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청소년이 55.4%, 가끔 있다는 청소년이 31.3%, 자주 발생한다는 청소년이 13.3%이다. 집단폭행은 다른 폭력 유형과 달리 남자청소년(11.4%)보다 여자청소년(24.2%)이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의외로 높았다.

두 사람이 서로 때리며 싸우는 ‘싸움’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청소년이 35.3%, 가끔 있다는 청소년이 41.0%, 자주 발생한다는 청소년이 33.7%이다. 이것도 중학생(29.7%)이 고등학생(18.0%)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 남자청소년(34.6%)이 여자청소년(13.3%)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집단으로 싸우는 ‘패싸움’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청소년

〈표 15〉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는 일 (단위 : %)

| 집 단 | 전혀없음 | 거의없음 | 가끔있음 | 자주있음 | 항상있음 | 사례수 | 통계치     |
|-----|------|------|------|------|------|-----|---------|
| 전 체 | 24.2 | 31.1 | 31.3 | 10.7 | 2.6  | 607 |         |
| 남 자 | 24.5 | 34.2 | 29.9 | 7.7  | 3.7  | 298 | X=9.56  |
| 여 자 | 23.9 | 28.2 | 32.7 | 13.6 | 1.6  | 309 | p=.0485 |

〈표 16〉 두 사람이 서로 때리며 싸우기 (단위 : %)

| 집 단      | 전혀없음 | 거의없음 | 가끔있음 | 자주있음 | 항상있음 | 사례수 | 통계치     |
|----------|------|------|------|------|------|-----|---------|
| 전 체      | 16.4 | 18.9 | 41.0 | 18.1 | 5.6  | 608 |         |
| 교급 중 학 교 | 13.1 | 17.8 | 39.4 | 22.6 | 7.1  | 297 | X=13.25 |
| 고등학교     | 19.6 | 19.9 | 42.4 | 13.8 | 4.2  | 311 | p=.0101 |
| 성별 남 자   | 12.8 | 9.7  | 43.0 | 25.5 | 9.1  | 298 | X=61.80 |
| 여 자      | 20.0 | 27.7 | 39.0 | 11.0 | 2.3  | 310 | p=.0000 |

년이 77.5%, 가끔 있다는 청소년이 17.4%, 자주 발생한다는 청소년이 5.1%로 비교적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간에 다소 차이가 있어 남자청소년(4.7%)이 여자청소년(5.5%)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낮아 앞의 집단폭행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실제 여학교 주변에서 이런 일이 더 발생하고 있다기 보다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폭력사용에 대해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폭행이나 패싸움의 경우와 같이 많은 사람이 폭력을 사용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볼 경우 한두 번만 보아도 자주 발생한 것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교내 기물파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청소년이 57.5%, 가끔 있다는 청소년이 26.9%, 자주 발생한다는 청소년이 15.7%이다. 이것도 남녀간에 다소 차이가 있어 남자청소년(19.8%)이 여자청소년(11.7%)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표 17〉 집단으로 패싸움하기

| 집 단 | 전혀없음 | 거의없음 | 가끔있음 | 자주있음 | 항상있음 | 사례수 | 통계치     |
|-----|------|------|------|------|------|-----|---------|
| 전 체 | 39.6 | 37.9 | 17.4 | 2.3  | 2.8  | 604 |         |
| 남 자 | 47.6 | 35.8 | 11.8 | 1.0  | 3.7  | 296 | X=26.48 |
| 여 자 | 31.8 | 39.9 | 22.7 | 3.6  | 1.9  | 308 | p=.0000 |

〈표 18〉 학교내 기물파괴

| 집 단 | 전혀없음 | 거의없음 | 가끔있음 | 자주있음 | 항상있음 | 사례수 | 통계치     |
|-----|------|------|------|------|------|-----|---------|
| 전 체 | 26.0 | 31.5 | 26.9 | 9.6  | 6.1  | 607 |         |
| 남 자 | 21.8 | 27.2 | 31.2 | 11.4 | 8.4  | 298 | X=18.71 |
| 여 자 | 30.1 | 35.6 | 22.7 | 7.8  | 3.9  | 309 | p=.0009 |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의 과반수 정도가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금품갈취나 협박, 단순폭행, 집단폭행, 기물파괴 등의 폭력적인 사건들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폭언이나 두 사람이 서로 때리며 싸우는 일은 대다수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는 청소년도 많았다. 집단간에는 대체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이 자주 발생한다고 보는 비율이 더욱 높아 학교나 학교 주변의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 (2) 폭력 대상별

여기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교사끼리, 동급생끼리 등 학교에서 폭력문제로 부딪칠 가능성이 있는 6가지 인간관계를 제시하고 각각의 관계에서 심한 체벌, 심한 반항, 폭언, 매질, 폭행, 금품갈취 등의 폭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으로 나누어 발생정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항상 있음’과 ‘자주 있음’이 각각 14.0%, ‘가끔 있음’이 28.1%, ‘거의 없음’이 23.6%, ‘전혀 없음’이 20.4%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가끔 또는 자주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별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학생(22.5%)에 비해 고등학생(33.3%)의 경우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것은 앞의 폭력 유형별 발생실태에

서 중학생이 느끼는 발생비율이 더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의외의 결과로 이는 실제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체벌을 많이 받고 있다기 보다는 앞의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교사의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빈도라도 적게 발생한 것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녀간에는 ‘항상 있음’은 남자청소년이 많으나(남 17.4%, 여 10.6%), ‘자주 있음’은 여자청소년이 많아(남 11.4%, 여 16.5%)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급생들 간에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24.4%, ‘가끔 있음’이 34.4%,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41.3%로 과반수를 훨씬 넘는 청소년이 동급생들 간에 폭력적인 일들이 가끔 또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표 19〉 교사가 학생에게

(단위 : %)

| 집 단      | 전혀없음 | 거의없음 | 가끔있음 | 자주있음 | 항상있음 | 사례수 | 통계치     |
|----------|------|------|------|------|------|-----|---------|
| 전 체      | 20.4 | 23.6 | 28.1 | 14.0 | 14.0 | 609 |         |
| 교급 중 학 교 | 24.9 | 25.9 | 26.9 | 10.4 | 11.8 | 297 | X=14.56 |
| 고등학교     | 16.0 | 21.5 | 29.2 | 17.3 | 16.0 | 312 | p=.0057 |
| 성별 남 자   | 27.1 | 22.1 | 22.1 | 11.4 | 17.4 | 299 | X=29.00 |
| 여 자      | 13.9 | 25.2 | 33.9 | 16.5 | 10.6 | 310 | p=.0000 |

〈표 20〉 동급생 사이에서

(단위 : %)

| 집 단 | 전혀없음 | 거의없음 | 가끔있음 | 자주있음 | 항상있음 | 사례수 | 통계치     |
|-----|------|------|------|------|------|-----|---------|
| 전 체 | 18.3 | 23.0 | 34.4 | 18.1 | 6.3  | 608 |         |
| 남 자 | 15.4 | 15.7 | 36.8 | 22.7 | 9.4  | 299 | X=33.46 |
| 여 자 | 21.0 | 30.1 | 32.0 | 13.6 | 3.2  | 309 | p=.0000 |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남녀간에 남자청소년(32.1%)이 여자청소년(16.8%)에 비해 자주 있는 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 ‘교사가 학생에게’나 ‘동급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실태와는 달리 나머지 관계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선배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이 교사에게’나 ‘후배가 선배에게’ ‘교사 사이에’ 폭력적인 일이 발생한다고 느낀 비율은 매우 적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그 질적인 면에서도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추세(심영희, 1988 : 31-33)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장유유서’의 전통적인 관습이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안이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폭력 사건들은 대부분 동급생이나 선배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기타의 관계에서

(단위 : %)

|          | 전혀없음 | 거의없음 | 가끔있음 | 자주있음 | 항상있음 | 사례  |
|----------|------|------|------|------|------|-----|
| 학생이 교사에게 | 54.4 | 30.6 | 12.2 | 1.5  | 1.3  | 607 |
| 선배가 후배에게 | 14.6 | 21.5 | 36.6 | 20.0 | 7.2  | 609 |
| 후배가 선배에게 | 48.8 | 36.3 | 12.2 | 1.0  | 1.6  | 608 |
| 교사 사이에서  | 67.6 | 24.2 | 5.9  | .8   | 1.5  | 608 |

### (3) 폭력씨클

조사대상 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폭력씨클이 있는지 알아 보았는데, 대부분의 청소년 (72.8%)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청소년이 20.6%였으며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6%에 그쳤다. 있다고 응답한 경우

〈표 22〉 폭력씨클 유무

| 폭력씨클 유무 | 빈도(명) | 백분율(%) |
|---------|-------|--------|
| 있다      | 40    | 6.6    |
| 없다      | 125   | 20.6   |
| 잘 모름    | 441   | 72.8   |

〈표 23〉 폭력씨클 수

| 폭력씨클 수 | 빈도(명) | 백분율(%) |
|--------|-------|--------|
| 1개     | 14    | 36.8   |
| 2개     | 14    | 36.8   |
| 3개 이상  | 10    | 26.3   |

폭력씨클의 수는 1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가 각각 36.8%, 3개 이상이 26.3%였다.

## 2) 청소년폭력 피해실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실태를 알아 보기 위해 10가지 폭력 유형에 대해 지난 일년간 학교안이나 주변에서 친한 친구 또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잘 알지 못하는 학생으로 부터 당할 수 있는 폭력 유형을 10가지로 정리해 제시하고 각각의 폭력 유형에 대해 ‘한번도 없음’ ‘일년에 한번 정도’ ‘일년에 두세번 정도’ ‘한 달에 한번 정도’ ‘한달에 두세번 정도’로 나누어 경험정도를 5점 척도로 물어 보았다.

### (1) 피해경험

여기에서는 폭력피해 경험의 유무를 알아 보기 위해 지난 일년 동안 폭력 피해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와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만을 나누어 살펴 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에서 친한 친구로 부터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58.3%로 고등학생(52.4%)보다는 중학생(64.4%)이, 여자청소년(45.8%)보다는 남자청소년(71.3%)의 경험률이 훨씬 높아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냈다. 친구에게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2.5%로 남자청소년(32.6%)의 경험률이 여자청소년(12.9%)보다 높았다. 친구가 자신에게 다칠 수도 있는 물건을 던진 경우는 23.8%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남자청소년(36.4%)이 여자청소년(11.7%)보다 많았다. 이와 같이 친한 친구들 간에 폭언이나 구타, 위험한 물건던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청소년들이 친구간에 가깝다는 이유로 꺼리낌없이 폭력적인 언사나 행동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잘 알지 못하는 학생으로 부터 폭언을 들은 경험은 34.3%로 여자청소년(29.0%)보다는 남자청소년(39.7%)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같은 학교 학생이 자신에게 다칠 수도 있는 물건을 던진 경우는 11.9%가 경험했고, 이 역시 남자청소년(15.8%)의 경험률이 여자청소년(8.1%)보다 높았다. 같은 학교 학생에게 금품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9.1%로 집단간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생(22.6%)이 고등학생(15.7%)보다 또 남자청소년(28.2%)이 여자청소년(10.3%)보다 경험률이 매우 높았다. 협박을 당한 경험도 14.5%로 중학생(19.7%)이 고등학생(9.6%)보다 남자청소년(20.2%)이 여자청소년(9.0%)보다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단독폭행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9.5%로 남녀간에만 차이를 보였는데(남 16.1%, 여 3.2%) 그 차이가 매우 컸다. 집단폭행 피해는 전체의 3.1%로 경험률이 낮기는 하지만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른 피해들의 경우 대체로 중학생의 경험률이 높았던 반면 이것은 고

등학생(4.8%)의 경험률이 중학생(1.4%)보다 높았고, 남자청소년(4.7%)의 경험률이 여자청소년(1.6%)보다 높은 것은 다른 것과 일치하고 있다. 폭력씨클의 가입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5%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10가지 폭력유형 중 지난 일년동안 한 가지라도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표 24>의 가장 상단에 있는 ‘폭력피해 전체’에 나타나 있다. 응답자 609명 중 73.4%를 차지하고 있는 447명의 청소년이 어떤 것이든지 한가지 정도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안이나 주변에서 폭력적인 행동들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폭력범죄로까지 분류될 수 있는 금품갈취, 협박, 단독 및 집단 폭행 등의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69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나 학교 주변 불량배가 아닌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내 폭력만을 조사한 결과임을 감안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청소년의 범죄피해를 조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김준호 외, 1991: 88)에 따르면 학교 안이나 밖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구분없이 금품갈취, 폭행, 협박 중 한가지라도 경험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6.1%로 나타나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학교안이나 주변에서 당하는 폭력 피해의 가해자가 불량배나 다른 학교 학생인 경우보다는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청소년 중에는 중학생(34.3%)이 고등학생(21.5%)보다 많았고, 남학생(40.1%)이 여학생(15.8%)보다 훨씬 많았다. 따라서 특히 남자 중학생의 경우 평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표 24〉 폭력피해 경험

(단위 : %)

| 교 급         | 구 분  |      | 성 별  |      | 계         |
|-------------|------|------|------|------|-----------|
|             | 중학교  | 고등학교 | 남 자  | 여 자  |           |
| 폭력피해 전체*    | 79.8 | 67.3 | 87.0 | 60.3 | 73.4(447) |
| 폭력범죄피해 전체** | 34.3 | 21.5 | 40.1 | 15.8 | 27.8(169) |
| 친구의 폭언      | 64.4 | 52.4 | 71.3 | 45.8 | 58.3(353) |
| 친구의 구타      | 23.3 | 21.8 | 32.6 | 12.9 | 22.5(137) |
| 친구의 물건던지기   | 26.0 | 21.6 | 36.4 | 11.7 | 23.8(143) |
| 폭언피해        | 37.8 | 30.9 | 39.7 | 29.0 | 34.3(208) |
| 물건던지기 피해    | 13.9 | 10.0 | 15.8 | 8.1  | 11.9(72)  |
| 금품갈취 피해     | 22.6 | 15.7 | 28.2 | 10.3 | 19.1(116) |
| 협박 피해       | 19.7 | 9.6  | 20.2 | 9.0  | 14.5(88)  |
| 단독폭행 피해     | 10.8 | 8.3  | 16.1 | 3.2  | 9.5(58)   |
| 집단폭행 피해     | 1.4  | 4.8  | 4.7  | 1.6  | 3.1(19)   |
| 폭력씨름가입 강요   | 2.7  | 2.2  | 3.7  | 1.3  | 2.5(15)   |

\* 폭력피해 전체란 열가지 폭력유형 중에서 한가지라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비율임.

\*\* 폭력범죄피해 전체란 열가지 폭력유형 중에서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금품갈취, 협박, 단독폭행 및 집단폭행 중 한가지라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비율임.

## (2) 피해정도

이상과 같이 대다수의 조사대상 청소년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폭력적인 행태를 당한 경험이 있고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고 있는 청소년도 4명중 1명꼴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 피해정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폭력유형에서 일년에 한번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로부터의 구타나 친구의 물건던지기, 같은 학교 학생의 폭언, 물건던지기, 금품갈취, 협박, 폭행, 집단폭행의 경우 일년에 1번 경험했다는 청소년

이 절반 내지 그 이상을 훨씬 넘고 있어 1년동안의 피해횟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로 부터의 폭언과 폭력씨클 가입 강요를 당한 청소년의 경우는 ‘일년에 1번’ 부터 ‘한달에 2~3번’ 까지 모든 정도 마다 그 응답비율이 비교적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친구간의 폭언 사용은 평소에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고, 폭력씨클 가입 강요는 한번 제의를 받는 경우 지속적으로 시달림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폭력 피해경험의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폭력피해 유형 2가지에 대해 각각 한 요인에 속한 폭력유형의 피해 갯수에 있어 교급과 성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부터의 위험한 물건던지기, 금품갈취, 협박, 단독폭행, 집단폭행, 폭력씨클 가입 강요 등 비교적 그 행태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편인 폭력유형들로 분류된

〈표 25〉 폭력피해 횟수

(단위 : %)

|           | 일년에 1번 | 일년에 2~3번 | 한달에 1번 | 한달에 2~3번 | 사례수 |
|-----------|--------|----------|--------|----------|-----|
| 친구의 폭언    | 32.9   | 22.7     | 11.3   | 33.1     | 353 |
| 친구의 구타    | 54.0   | 19.0     | 17.5   | 9.5      | 137 |
| 친구의 물건던지기 | 60.1   | 19.6     | 9.8    | 10.5     | 143 |
| 폭언피해      | 55.3   | 24.0     | 12.0   | 8.7      | 208 |
| 물건던지기 피해  | 56.9   | 29.2     | 8.3    | 5.6      | 72  |
| 금품갈취 피해   | 65.5   | 21.6     | 6.9    | 6.0      | 116 |
| 협박 피해     | 61.4   | 18.2     | 12.5   | 8.0      | 88  |
| 폭행 피해     | 72.4   | 13.8     | 6.9    | 6.9      | 58  |
| 집단폭행 피해   | 57.9   | 26.3     | 10.5   | 5.3      | 19  |
| 폭력씨클가입 강요 | 33.3   | 40.0     | 20.0   | 6.7      | 15  |

「폭력피해유형 1」에 속한 폭력유형들의 피해 갯수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역시 폭력피해 전체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중학생(범위 0~6에 대해 .70)의 피해갯수가 고등학생(.51)보다 많았고, 남자청소년(.88)의 피해갯수가 여자청소년(.34)보다 훨씬 많았다.

〈표 26〉 폭력피해유형별 피해갯수

| 구분                  |   |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폭력<br>피해<br>유형<br>1 | 교 | 중 학 교 | .70  | 1.10 | 297 | t=2.26   |
|                     | 급 | 고등학교  | .51  | 1.09 | 312 | p=.024   |
|                     | 성 | 남 자   | .88  | 1.29 | 299 | t=6.28   |
|                     | 별 | 여 자   | .34  | .79  | 310 | p = .000 |
| 폭력<br>피해<br>유형<br>2 | 교 | 중 학 교 | 1.50 | 1.17 | 297 | t = 2.51 |
|                     | 급 | 고등학교  | 1.26 | 1.22 | 312 | p = .012 |
|                     | 성 | 남 자   | 1.78 | 1.20 | 299 | t = 8.57 |
|                     | 별 | 여 자   | .99  | 1.06 | 310 | p = .000 |

친한 친구로 부터의 폭언, 구타, 물건던지기 및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부터의 폭언 등 그 행태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성이 덜한 폭력유형들로 분류된 「폭력피해유형 2」에 속한 폭력유형들의 피해 갯수도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범위 0-4에 대해 1.50)의 피해갯수가 고등학생(1.26)보다 많았고, 남자청소년(1.78)의 피해갯수가 여자청소년(1.06)보다 훨씬 많았다.

### 3) 청소년폭력 가해실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가해실태를 알아 보기 위해 지난 1년간

학교안이나 주변에서 친한 친구 또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잘 알지 못하는 학생에게 가할 수 있는 폭력 유형을 10가지로 정리해 제시하고 각각의 폭력 유형에 대해 ‘한번도 없음’ ‘일년에 한번 정도’ ‘일년에 두세번 정도’ ‘한달에 한번 정도’ ‘한달에 두세번 정도’로 나누어 가해경험 정도를 5점척도로 물어 보았다.

### (1) 가해경험

여기에서는 폭력가해 경험의 유무를 알아 보기 위해 지난 일년 동안 폭력 가해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와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만을 나누어 살펴 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에서 친한 친구에게 폭언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50.7%로 고등학생(44.6%)보다는 중학생(57.1%)이, 여자청소년(41.6%)보다는 남자청소년(60.1%)의 경험률이 훨씬 높아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것은 피해경험률과 비슷한 결과로서 친구간의 폭언은 일방적으로 당한다기 보다는 서로 주고 받는 정도가 비슷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친구를 때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1.1%로 이 역시 피해경험률과 비슷한데 남자청소년(29.9%)의 경험률이 여자청소년(12.6%)보다 높았다. 친구에게 다칠 수도 있는 물건을 던진 경우는 16.0%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남자청소년(24.9%)이 여자청소년(7.4%)보다 많았다.

또한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잘 알지 못하는 학생에게 폭언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9.7%로 여자청소년(16.1%)보다는 남자청소년(23.5%)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같은 학교 학생에게 다칠 수도 있는 물건을 던진 경우는 6.8%가 경험했는데 남자청소년(12.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자청소년(1.6%)의 경험률은 매우 낮았다. 같은 학교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경험이 있

는 청소년은 4.1%로 남자청소년(7.4%)이 여자청소년(1.0%)보다 경험률이 매우 높았다. 협박을 한 경험도 5.8%로 남자청소년(8.1%)이 여자청소년(3.5%)보다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단독 폭행 가해를 한 비율은 5.1%로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3.4%)보다는 고등학생(7.4%)의 가해률이 높았고, 남녀(남 7.0%, 여 1.9%)간에도 그 차이가 매우 컸다. 집단폭행 가해를 한 비율은 4.4%로 이 역시 남자청소년(7.0%)의 경험률이 여자청소년(1.9%)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학교기물을 파괴한 경험은 20.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 대부분이 남자청소년이다(남 32.9%, 여 8.7%).

〈표 27〉 폭력가해 경험

| 구 분         | 교 급  |      | 성 별  |       | 계         |
|-------------|------|------|------|-------|-----------|
|             | 중학교  | 고등학교 | 남    | 자 여 자 |           |
| 폭력가해 전체*    | 66.0 | 59.3 | 75.6 | 50.0  | 62.6(381) |
| 폭력범죄가해 전체** | 8.1  | 10.6 | 14.0 | 4.8   | 9.4(57)   |
| 친구에게 폭언     | 57.1 | 44.6 | 60.1 | 41.6  | 50.7(308) |
| 친구에게 구타     | 20.6 | 21.5 | 29.9 | 12.6  | 21.1(128) |
| 친구에게 물건던지기  | 16.9 | 15.1 | 24.9 | 7.4   | 16.0(97)  |
| 폭언가해        | 16.6 | 22.8 | 23.5 | 16.1  | 19.7(120) |
| 물건던지기 가해    | 6.1  | 7.4  | 12.1 | 1.6   | 6.8(41)   |
| 금품갈취 가해     | 3.4  | 4.8  | 7.4  | 1.0   | 4.1(25)   |
| 협박 가해       | 6.1  | 5.4  | 8.1  | 3.5   | 5.8(35)   |
| 폭행 가해       | 2.7  | 7.4  | 9.1  | 1.3   | 5.1(31)   |
| 집단폭행 가해     | 3.4  | 5.4  | 7.0  | 1.9   | 4.4(27)   |
| 학교기물 파괴     | 23.0 | 18.3 | 32.9 | 8.7   | 20.6(125) |

\* 폭력가해 전체란 열가지 폭력유형 중에서 한가지라도 가해를 한 적이 있는 비율임.

\*\* 폭력범죄가해 전체란 열가지 폭력유형 중에서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금품갈취, 협박, 단독폭행 및 집단폭행 중 한가지라도 가해를 한 적이 있는 비율임.

이상의 10가지 폭력유형 중 지난 일년동안 한 가지라도 가해를 한 청소년의 비율은 〈표 27〉의 가장 상단에 있는 ‘폭력가해 전체’에 나타나 있다. 응답자 609명 중 62.6%를 차지하고 있는 381명의 청소년이 어떤 것이든지 한가지 정도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분석한 피해실태와 더불어 이 가해실태를 통해서도 학교안이나 주변에서 폭력적인 행동들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폭력범죄로 까지 분류될 수 있는 금품갈취, 협박, 단독 및 집단 폭행 등의 폭력 가해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7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해 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가 같은 학교의 학생에게 폭력피해를 입힌 경험이 있으며, 특히 남학생(14.0%)의 가해경험이 여학생(4.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가해정도

이상과 같이 조사대상 청소년의 많은 비율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력적인 행태를 가한 경험이 있고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도 10명중 1명꼴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 가해정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친구를 때리거나 친구에게 물건을 던진 경우와 학교기물을 파괴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일년에 1번 정도 했다는 청소년이 가장 많고 빈도가 높을 수록 응답률이 적어지는데 반해, 나머지 폭력유형에 있어서는 물론 일년에 1번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비교적 모든 정도에 응답률이 분산되어 있다. 특히 피해 정도와 비교해 특기할 만한 것은 폭력범죄에 속하는 유형에 있어 피해 정도와는 달리 가해 정도는 ‘한달에 2~3번’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해 청소년의 경우 피해 청소년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복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8〉 폭력가해 횟수

(단위 : %)

|            | 일년에 1번 | 일년에 2~3번 | 한달에 1번 | 한달에 2~3번 | 사례수 |
|------------|--------|----------|--------|----------|-----|
| 친구에게 폭언    | 51.9   | 15.6     | 12.0   | 20.5     | 308 |
| 친구에게 구타    | 57.0   | 20.3     | 10.9   | 11.7     | 128 |
| 친구에게 물건던지기 | 64.9   | 17.5     | 8.2    | 9.3      | 97  |
| 폭언가해       | 60.0   | 20.0     | 10.8   | 9.2      | 120 |
| 물건던지기 가해   | 56.1   | 24.4     | 4.9    | 14.6     | 41  |
| 금품갈취 가해    | 44.0   | 8.0      | 28.0   | 20.0     | 25  |
| 협박 가해      | 51.4   | 17.1     | 17.1   | 14.3     | 35  |
| 폭행 가해      | 58.1   | 12.9     | 12.9   | 16.1     | 31  |
| 집단폭행 가해    | 51.9   | 14.8     | 11.1   | 22.2     | 27  |
| 학교기물 파괴    | 76.0   | 15.2     | 3.2    | 5.6      | 125 |

폭력 가해경험의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폭력가해 유형 2가지에 대해 각각 한 요인에 속한 폭력유형의 가해 갯수에 있어 교급과 성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위험한 물건던지기, 금품갈취, 협박, 단독폭행, 집단폭행 등 비교적 그 행태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편인 폭력유형들로 분류된 「폭력가해유형 1」에 속한 폭력유형들의 가해 갯수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역시 폭력피해 전체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남자청소년(범위 0-5에 대해 .43)의 피해갯수가 여자청소년(.09)보다 많았다.

친한 친구에게의 폭언, 구타, 물건던지기 및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의 폭언, 학교기물 파괴 등 그 행태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성이 덜한 폭력유형들로 분류된 「폭력가해유형 2」에

속한 폭력유형들의 가해 갯수도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청소년(범위 0-5에 대해 1.71)의 가해갯수가 여자청소년(.86)보다 많았다.

〈표 29〉 폭력가해유형별 가해갯수

| 구 분      | 남 자  |      |     | 여 자 |      |     | 통계치         |
|----------|------|------|-----|-----|------|-----|-------------|
|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폭력가해유형 1 | .43  | 1.12 | 299 | .09 | .46  | 310 | t = 4.90*** |
| 폭력가해유형 2 | 1.71 | 1.43 | 299 | .86 | 1.10 | 310 | t = 8.12*** |

\*\*\*p < .001

### 3. 청소년 폭력의식 및 폭력경험 관련요인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폭력 전반에 대한 의식과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발생실태 및 청소년들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교급과 성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상 사회인구학적 변인 외에 청소년의 비행경험 여부가 폭력 경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선행연구(김준호, 1991 : 32 ; Sommers & Baskin, 1994 : 479 ; Salts et al, 1995 : 386)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경험과의 관계를 다시한번 검증하는 동시에 폭력의식과의 관계도 알아 보기 위해 흡연, 음주, 약물의 경험을 조사하였으나 약물사용 청소년은 너무 소수라 분석에서 제외하고 흡연 및 음주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으며, 또한 폭력의식 및 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들 간에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 보았다.

## 1) 청소년 지위비행과의 관계

여기에서는 그 행위 자체는 비행이 아니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인 청소년 지위비행 중에서 특히 현재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위비행인 흡연 및 음주 경험과 폭력 의식 및 경험과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 (1) 폭력 의식과 지위비행과의 관계

폭력 의식과 지위비행과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흡연 및 음주 경험 유무에 따른 폭력 의식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 보았다.

먼저 「폭력에 대한 보편적 거부」로 분류된 유형에 대해서는 흡연 경험과 음주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위비행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범위 6-30에 대해 흡연 22.74, 음주 22.93)보다는 있는 청소년(범위 6-30에 대해 흡연 21.52, 음주 22.04)이 폭력을 거부하는 문항에 대해 덜 동의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는 총 6문항 중 2문항에서 흡연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3문항에서 음주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났다. ‘폭력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총점 5에 대해 흡연 유 4.07 무 4.32, 음주 유 4.19 무 4.35)는 문항에서 흡연과 음주 경험 모두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보다 더 동의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결과가 좋을 지라도 폭력의 사용은 합리화될 수 없다’(총점 5에 대해 음주 유 3.45, 무 3.68)는 문항에 관해서도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보다는 없는 청소년이 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폭력에 대해 덜 거부적인 경향과는 달리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폭력이 필요

한 경우가 있다’(총점 5에 대해 흡연 유 3.58 무 3.33, 음주 유 3.63 무 3.42)라는 폭력의 필요성을 나타낸 문항에 대해서는 흡연이나 음주 모두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더 동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문항에서 폭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미온적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경향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30〉 지위비행과 폭력에 대한 보편적 거부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음 | 22.74 | 4.06 | 462 | t = 3.10 |
| 있음      | 21.52 | 4.06 | 138 | p = .002 |
| 음주경험 없음 | 22.93 | 3.94 | 290 | t = 2.72 |
| 있음      | 22.04 | 4.16 | 311 | p = .007 |

「폭력에 대한 구체적 거부」로 분류된 유형에 대해서는 흡연경험 유무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흡연경험이 없는 청소년(범위 5-25에 대해 19.93)보다는 있는 청소년(범위 5-25에 대해 19.08)이 역시 폭력을 거부하는 문항에 대해 덜 동의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는 총 5문항 중 2문항에서 흡연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서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총점 5에 대해 유 4.08, 무 4.33)는 문항과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라고 볼 수 없다’(총점 5에 대해 유 3.82, 무 4.17)라는 문항에 관해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보다는 없는 청소년이 더 동의하고 있어 대체로 지위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폭력사용에 대해 덜 거부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1〉 지위비행과 폭력에 대한 구체적 거부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음 | 19.93 | 3.30 | 462 | t = 2.62 |
| 있음      | 19.08 | 3.36 | 138 | p = .009 |

「폭력의 범위」로 분류된 유형에 있어서도 흡연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여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범위 3-15에 대해 11.16)보다는 없는 청소년(범위 3-15에 대해 12.19)이 폭력의 범위를 더욱 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3문항 모두 흡연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유의했고 1문항에서는 음주경험 유무와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한 욕설이나 저주와 같은 폭언도 폭력에 해당한다’라는 문항에서 총점 5에 대해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70, 없는 청소년은 3.96을 나타내어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폭언의 폭력성을 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질서를 위반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도 일종의 폭력이다’(총점 5에 대해 유 3.37 무 3.77)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덜 동의한다. ‘길에서 여자에게 음란한 말이나 몸짓으로 희롱하는 것은 성폭력에 해당한다’(총점 5에 대해 흡연 유 4.09 무 4.46, 음주 유 4.30 무 4.46)라는 문항에 관해서는 흡연이나 음주경험 모두 있는 청소년이 덜 동의하고 있어 성희롱의 폭력성 역시 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지위비행과 폭력의 범위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음 | 12.19 | 2.23 | 462 | t = 4.90 |
| 있음      | 11.16 | 2.16 | 138 | p = .000 |

「폭력의 효용성」으로 분류된 유형에 있어서도 흡연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범위 3-15에 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8.45, 없는 청소년은 7.66으로 나타나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폭력 사용의 효용성을 상대적으로 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3문항 중 1문항에서 흡연 및 음주 경험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가 좋다면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문항에서 총점 5에 대해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83, 없는 청소년은 2.41을 나타냈고,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59, 없는 청소년은 2.39를 나타내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폭력의 문제 해결능력을 더욱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폭력 사용의 효용성이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다고 유동적으로 인정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지위비행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폭력 사용의 효용성이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폭력의 필요성」으로 분류된 유형과 그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3〉 지위비행과 폭력의 효용성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음 | 7.66 | 2.58 | 462 | $t = -3.15$ |
| 있음      | 8.45 | 2.58 | 138 | $p = .002$  |

「훈육을 위한 폭력허용」으로 분류된 유형에 있어서는 흡연과 음주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위비행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범위 4-20에 대해 흡연 12.46, 음주 12.67)은 훈육을 위한 폭력사용을 허용하는 편인데 반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범위 4-20에 대해 흡연 11.64, 음주 11.89)은 허용하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4문항 중 흡연경험 유무에 따라 2문항, 음주경험 유무에 따라 2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은 학생을 때릴 수 있다’(총점 5에 대해 흡연 유 2.84 무 3.15, 음주 유 2.96 무 3.19)라는 문항에서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교사의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때리는 매는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총점 5에 대해 유 2.79, 무 3.05)라는 문항에 관해서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훈육을 위한 매를 폭력으로 보고 있고, ‘자식을 바로 키우려면 매를 아껴서는 안된다’(총점 5에 대해 유 3.01, 무 3.24)라는 문항에서는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체벌에 대해 덜 동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위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훈육을 위한 폭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앞서 폭력거부에 대해 덜 동의하고 있고 폭력사용의 효용성에 대해 더 동의하고 있는 태도와는 대조를 보이는 결과이다. 이것은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없는 청소년에 비해 부모님이나 교사의 체벌을 받은 경험이나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친지에 대한 폭력허용」으로 분류된 유형에 있어서도 흡연과 음주 경험유무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범위 4-20에 대해 흡연 9.21, 음주 8.61)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범위 4-20에 대해 흡연 8.13, 음주 8.14)에 비해 가까운 사람끼리의 폭력허용을 덜 부정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4문항 중 흡연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모든 문항에서 흡연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1문항

〈표 34〉 지위비행과 훈육을 위한 폭력허용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 없음  | 12.46 | 462 | t = 2.41 |
|      | 있음  | 11.64 | 138 | p = .017 |
| 음주경험 | 없음  | 12.67 | 290 | t = 2.68 |
|      | 있음  | 11.89 | 311 | p = .008 |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간의 폭력은 그 가족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총점 5에 대해 유 2.57, 무 2.21)라는 문항과 ‘부부간의 폭력사용은 사랑싸움이므로 말릴 필요가 없다’(총점 5에 대해 유 2.01, 무 1.79), ‘가까운 사람끼리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총점 5에 대해 유 2.45, 무 2.16) 등의 문항에서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등 친지간의 폭력사용에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고 있다. 또한 ‘나와 가까운 사람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 구타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총점 5에 대해 흡연 유 2.18 무 1.97, 음주 유 2.10 무 1.92)라는 보복성 폭력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도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표 35〉 지위비행과 친지에 대한 폭력허용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 없음  | 8.13 | 462 | t = -4.06 |
|      | 있음  | 9.21 | 138 | p = .000  |
| 음주경험 | 없음  | 8.14 | 290 | t = -2.15 |
|      | 있음  | 8.61 | 311 | p = .032  |

## (2) 폭력경험과 지위비행과의 관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지위비행과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흡연 및 음주 경험 정도와 폭력경험 정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았다. 흡연 및 음주의 경험정도는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자주’ ‘항상’ 의 5점척도로 물어본 것을 사용하였고, 폭력경험 정도는 피해 및 가해 유형 1, 2로 분류해 각각의 경험갯수를 알아본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흡연경험은 폭력성의 심각성 정도와 관계없이 폭력 피해 경험과는 상관이 낮았으나 폭력가해 경험과는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담배를 자주 피울수록 여러가지 유형의 폭력 행위를 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1유형 .37, 2유형 .34). 교급별로는 중학생(1유형 .33, 2유형 .30)보다는 고등학생(1유형 .40, 2유형 .43)의 상관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자청소년(1유형 .32, 2유형 .26)보다 여자청소년(1유형 .40, 2유형 .37)의 상관이 높았다.

〈표 36〉 흡연경험과 폭력경험과의 상관관계

| 집단       | 사례수 | 피해유형1   | 피해유형2   | 가해유형1   | 가해유형2   |
|----------|-----|---------|---------|---------|---------|
| 전 체      | 609 | .1658** | .1339** | .3714** | .3481** |
| 교급 중 학 교 | 297 | .2816** | .0931   | .3327** | .3067** |
| 고등학교     | 312 | .1740*  | .2168** | .4008** | .4361** |
| 성별 남 자   | 299 | .0782   | .0372   | .3294** | .2619** |
| 여 자      | 310 | .2044** | .1040   | .4006** | .3757** |

\*P < .01 \*\*P < .001

또한 청소년의 음주경험도 전반적으로 흡연경험보다는 상관이 낮기는 하지만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중학생의 음주 경험(1유형 .33)을 제외하고는 폭력피해와는 별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폭력가해 경험과는 높은 상관을 나타내 술을 많이 마실수록 여러가지 유형의 폭력행위를 가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인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어 「가해유형 1」에 대해 중학생(.34)은 상관이 높았으나 고등학생(.29)은 상관이 낮아 유의하지 않았고 「가해유형 2」에 대해서도 중학생(.36)보다 고등

학생(.38)의 상관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1유형 .31, 2 유형 .33)만 상관의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 지위비행과 폭력경험과의 관계에서 음주경험보다는 흡연경험의 상관의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흡연보다는 음주의 경우 비행으로서의 자각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보편적으로 경험되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7〉 음주경험과 폭력경험과의 상관관계

| 집 단      | 사례수 | 피해유형1   | 피해유형2  | 가해유형1   | 가해유형2   |
|----------|-----|---------|--------|---------|---------|
| 전 체      | 609 | .1755** | .1003* | .3119** | .3313** |
| 교급 중 학 교 | 297 | .3357** | .1708* | .3498** | .3677** |
| 고등학교     | 312 | .1505*  | .1373* | .2958** | .3869** |
| 성별 남 자   | 299 | .1431*  | .0183  | .2960** | .2754** |
| 여 자      | 310 | .1370*  | .0904  | .3139** | .3328** |

\*  $P < .01$  \*\*  $P < .001$

## 2) 청소년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과의 관계

전체적으로 10가지 폭력피해 유형들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관의 정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친구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이 많을 수록 또한 친구가 자신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진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31), 같은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으로 부터의 폭언과 물건던지기(.36), 금품갈취와 협박(.42) 및 폭행(.33), 협박과 폭행(.38), 집단폭행과 폭력써클 가입강요(.36)의 피해경험은 서로 상관의 높게 나타났다.

폭력피해 유형과 마찬가지로 10가지 폭력가해 유형들도 전체적으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나, 피해의 경우보다는 상관의 높게 나타났다. 친구에게 폭언을 한 경험이 많을 수록 친구를 구타한 경험도 많았고(.35), 친구 구타와 친구에게 물건던지기(.35)

〈표 38〉 폭력피해 유형별 상관관계

| 피해<br>유형 | 친구<br>폭언 | 친구<br>구타 | 친구<br>물건 | 폭언      | 물건<br>던짐 | 금품<br>갈취 | 협박      | 단독<br>폭행 | 집단<br>폭행 | 폭력<br>씨름 |
|----------|----------|----------|----------|---------|----------|----------|---------|----------|----------|----------|
| 친구폭언     | 1.0000   |          |          |         |          |          |         |          |          |          |
| 친구구타     | .2931**  | 1.0000   |          |         |          |          |         |          |          |          |
| 친구물건     | .2854**  | .3140**  | 1.0000   |         |          |          |         |          |          |          |
| 폭언       | .2619**  | .1383**  | .1698**  | 1.0000  |          |          |         |          |          |          |
| 물건던짐     | .1462**  | .1112*   | .2406**  | .3672** | 1.0000   |          |         |          |          |          |
| 금품갈취     | .1721**  | .1710**  | .2090**  | .2257** | .2874**  | 1.0000   |         |          |          |          |
| 협박       | .1874**  | .1179*   | .1326**  | .2383** | .2668**  | .4268**  | 1.0000  |          |          |          |
| 단독폭행     | .1672**  | .2009**  | .1157*   | .1696** | .2765**  | .3389**  | .3860** | 1.0000   |          |          |
| 집단폭행     | .1177*   | .1334**  | .1462**  | .1197*  | .2428**  | .2201**  | .2132** | .2792**  | 1.0000   |          |
| 폭력씨름     | .0397    | .1186*   | .1125*   | .1549** | .2298**  | .2679**  | .2869** | .1962**  | .3606**  | 1.0000   |

\*P &lt; .01 \*\* P &lt; .001

및 같은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에게의 폭언(.31), 폭행(.33)의 상관도 높았다.

친구에게 물건을 던진 경험과 교내의 잘 모르는 학생에게 물건을 던진 경험도 상관이 높았다(.35). 또한 폭언경험은 물건던지기(.44), 협박(.31), 폭행(.34)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물건던지기는 금품갈취(.46), 협박(.36), 단독폭행(.47), 집단폭행(.34)과 상관이 높았으며, 금품갈취는 협박(.51), 단독폭행(.57), 집단폭행(.51)과 상관이 높았다. 그리고 협박은 단독폭행(.62), 집단폭행(.54)과 상관이 높고 단독폭행은 집단폭행(.67)과 상관이 높았다. 이와 같이 폭력성의 정도가 심각한 폭력유형일 수록 서로 상관이 높아 심각한 폭력가해를 한가지라도 저지른 청소년은 폭력의 심각성 면에서 그와 유사한 다른 유형의 폭력가해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9〉 폭력가해 유형별 상관관계

| 가해<br>유형 | 친구<br>폭언 | 친구<br>구타 | 친구<br>물건 | 폭언      | 물건<br>던짐 | 금품<br>갈취 | 협박      | 단독<br>폭행 | 집단<br>폭행 | 기물<br>파괴 |
|----------|----------|----------|----------|---------|----------|----------|---------|----------|----------|----------|
| 친구폭언     | 1.0000   |          |          |         |          |          |         |          |          |          |
| 친구구타     | .3577**  | 1.0000   |          |         |          |          |         |          |          |          |
| 친구물건     | .2993**  | .3573**  | 1.0000   |         |          |          |         |          |          |          |
| 폭언       | .2689**  | .3115**  | .2363**  | 1.0000  |          |          |         |          |          |          |
| 물건던짐     | .1478**  | .2614**  | .3560**  | .4480** | 1.0000   |          |         |          |          |          |
| 금품갈취     | .1221*   | .2161**  | .2417**  | .2851** | .4644**  | 1.0000   |         |          |          |          |
| 협박       | .1222*   | .2691**  | .2370**  | .3179** | .3683**  | .5178**  | 1.0000  |          |          |          |
| 단독폭행     | .1343**  | .3329**  | .2224**  | .3478** | .4738**  | .5780**  | .6207** | 1.0000   |          |          |
| 집단폭행     | .1536**  | .2967**  | .2510**  | .2715** | .3401**  | .5199**  | .5465** | .6777**  | 1.0000   |          |
| 기물파괴     | .2125**  | .2179**  | .2460**  | .2597** | .2357**  | .1245*   | .1719** | .1789**  | .1865**  | 1.0000   |

\*P &lt; .01 \*\* P &lt; .001

폭력피해경험과 가해경험도 전체적으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피해를 많이 당한 청소년이 가해도 많이 하고 있고, 가해를 많이 한 청소년이 피해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김준호, 1991 : 331—335).

친구에 대한 가해와 친구에 의한 피해는 동일한 폭력유형에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친구에게 욕을 한 경험이 많을 수록 욕을 먹은 경험도 많고(.50), 때린 경험이 많을 수록 맞은 경험도 많으며(.39), 위협한 물건을 던진 적이 많을 수록 당한 적도 많은 것(.5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에게 거친 말을 사용하거나 때리는 청소년들은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청소년끼리 주로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내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에게 가해한 경험은 다른 유형의 피해와는 상관관계가 낮고 주로 집단폭행과 폭력씨를 가입강요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즉 교내학생에게 금품갈취(.30)나 단독폭행(.35), 집단폭행(.38)을 한 경험이 많을 수록 집단폭행을 당한 경험도 많을 뿐 아니라, 앞의 요인분석에서 「폭력

가해유형 1」로 분류된 비교적 폭력성의 정도가 심각한 폭력유형인 교내학생에게 물건던지기(.31), 금품갈취(.36), 협박(.31), 단독폭행(.41), 집단폭행(.45)의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폭력씨클에 가입하도록 강요당한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폭력가해 경험이 많을 수록 피해경험도 많고, 피해경험이 많을 수록 가해경험도 많아 이들 경험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집단폭행 피해 및 폭력씨클 가입강요는 가해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폭력적인 학생들 간에 서로 피해를 입히고 피해를 당한 경우 이를 보복하기 위해 상대방을 집단으로 폭행하게 되며 이들 폭력 청소년들 간에 서로 폭력씨클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40〉 폭력 피해와 가해 유형별 상관관계

| 가해<br>피해 | 친구<br>폭언 | 친구<br>구타 | 친구<br>물건 | 폭언      | 물건<br>던짐 | 금품<br>갈취 | 협박      | 단순<br>폭행 | 집단<br>폭행 | 기물<br>파괴 |
|----------|----------|----------|----------|---------|----------|----------|---------|----------|----------|----------|
| 친구폭언     | .5019**  | .2461**  | .2225**  | .1594** | .1266**  | .0979*   | .1164*  | .0476    | .0939    | .1820**  |
| 친구구타     | .2906**  | .3964**  | .2394**  | .0919   | .1421**  | .1864**  | .1058*  | .1461**  | .1523**  | .1470**  |
| 친구물건     | .2683**  | .2315**  | .5061**  | .1426** | .2057**  | .1067    | .1160*  | .1386**  | .1621**  | .2579**  |
| 폭언       | .2390**  | .1838**  | .1828**  | .2711** | .2243**  | .2033**  | .1373** | .1680**  | .1824**  | .1519**  |
| 물건던짐     | .1657**  | .1630**  | .2695**  | .2282** | .3556**  | .1764**  | .2339** | .2117**  | .2377**  | .2177**  |
| 금품갈취     | .1652**  | .1621**  | .0788    | .2438** | .2195**  | .2130**  | .1681** | .2282**  | .2784**  | .1897**  |
| 협박       | .1793**  | .1686**  | .1307**  | .2086** | .1692**  | .1498**  | .2562** | .1593**  | .2257**  | .1297**  |
| 단순폭행     | .1238**  | .1094*   | .0909    | .1362** | .1998**  | .1555**  | .1827** | .1769**  | .2518**  | .1142*   |
| 집단폭행     | .1029*   | .1842**  | .1995**  | .2368** | .2670**  | .3063**  | .2620** | .3537**  | .3868**  | .1017*   |
| 폭력씨클     | .0802    | .2016**  | .1876**  | .1856** | .3181**  | .3629**  | .3122** | .4192**  | .4579**  | .0792    |

\*P < .01 \*\* P < .001

### 3) 청소년 폭력의식과 폭력경험과의 관계

청소년의 폭력의식과 폭력경험과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폭력 피해 및 가해 유형 10가지에 대해 각각 1가지의 폭력경험도

없는 집단과 1~2개 폭력유형의 경험이 있는 집단, 3~10개 폭력유형의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나누어 세집단의 폭력의식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폭력경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이 세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피해경험의 경우 없는 청소년이 26.6%(162), 1~2개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39.6%(241), 3~10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3.8%(206)이고, 가해경험의 경우는 없는 청소년이 37.4%(228), 1~2개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41.3%(251), 3~10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1.3%(130)이다.

#### (1) 청소년 폭력의식과 피해경험과의 관계

「폭력에 대한 보편적 거부」로 분류된 유형의 폭력의식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폭력에 대한 구체적 거부」로 분류된 유형의 폭력의식에 있어서는 범위 5~25에 대해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은 20.54, 1~2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19.61, 3~10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19.25이며,  $F=7.22$ 로 나타나 집단간 차이가 유의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1-2개 피해집단,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3-10개 피해집단 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피해경험이 많을 수록 폭력거부에 대해 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보편적 거부」로 분류된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는 총 6문항 중 1문항에서 의식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총점 5에 대해 없음 4.40, 1-2개 4.27, 3-10개 4.16)라는 문항에서 피해경험이 많을 수록 더욱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3-10개 피

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또한 「폭력에 대한 구체적 거부」로 분류된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5문항 중 3문항에서 의식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은 사회문제이므로 가족간의 폭력사용도 허용해서는 안된다’(총점 5에 대해 없음 3.89, 1-2개 3.61, 3-10개 3.63)라는 문항에 대해 피해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더욱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 1-2개 피해집단,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피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질서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총점 5에 대해 없음 4.46, 1-2개 4.27, 3-10개 4.14)라는 문항에 대해 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 수록 덜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 1-2개 피해집단,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피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라고 볼 수 없다’(총점 5에 대해 없음 4.31, 1-2개 4.15, 3-10개 3.89)라는 문항에 대해 피해경험이 많을 수록 덜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1-2개 피해집단 \* 3-10개 피해집단,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피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폭력의 범위」로 분류된 유형의 폭력의식에 있어서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범위 3-15에 대해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은 12.54, 1-2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11.81, 3-10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11.64이며,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 1-2개 피해집단,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피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

〈표 41〉 폭력피해경험과 폭력에 대한 구체적 거부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피해경험 없음  | 20.54 | 3.25 | 162 | F = 7.219<br>p = .0008 |
| 1-2개 피해  | 19.61 | 3.18 | 241 |                        |
| 3-10개 피해 | 19.25 | 3.51 | 206 |                        |

이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피해경험이 많을 수록 폭력의 범위를 좁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3문항 중 2문항에서 의식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욕설이나 저주와 같은 폭언도 폭력에 해당한다’(총점 5에 대해 없음 4.09, 1-2개 3.80, 3-10개 3.84)라는 문항에 대해 피해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더욱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1-2개 피해집단,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3-10개 피해집단 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길에서 여자에게 음란한 말이나 몸짓으로 희롱하는 것은 성폭력에 해당한다’(총점 5에 대해 없음 4.64, 1-2개 4.38, 3-10개 4.17)라는 문항에 대해 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 수록 덜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1-2개 피해집단,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3-10개 피해집단, 1-2개 피해집단\*3-10개 피해집단 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표 42〉 폭력피해경험과 폭력의 범위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피해경험 없음  | 12.54 | 2.20 | 162 | F = 8.028<br>p = .0004 |
| 1-2개 피해  | 11.81 | 2.23 | 241 |                        |
| 3-10개 피해 | 11.64 | 2.26 | 206 |                        |

「친지에 대한 폭력허용」으로 분류된 유형의 폭력의식에 있어서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범위 4-20에 대해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은 7.90, 1-2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8.46, 3-10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8.68이며, 사후검사로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 1-2개 피해집단,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피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피해경험이 많을 수록 가까운 사람끼리의 폭력사용을 허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4문항 중 1문항에서 의식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폭력사용은 사랑싸움이므로 말릴 필요가 없다’(총점 5에 대해 없음 1.64, 1-2개 1.92, 3-10개 1.92)라는 문항에 대해 피해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더욱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 1-2개 피해집단,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피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표 43〉 폭력피해경험과 친지에 대한 폭력허용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피해경험 없음  | 7.90 | 2.60 | 162 | F = 4.097<br>p = .0171 |
| 1- 2개 피해 | 8.46 | 2.57 | 241 |                        |
| 3-10개 피해 | 8.68 | 2.82 | 206 |                        |

그 밖에 「훈육을 위한 폭력허용」과 「폭력의 효용성」, 「폭력의 필요성」으로 분류된 유형의 의식에 있어서는 폭력피해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청소년 폭력의식과 가해경험과의 관계

「폭력에 대한 보편적 거부」로 분류된 유형의 폭력의식에 있어서는 범위 6-30에 대해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은 23.11, 1-2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22.60, 3-10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21.06이며,  $F=11.01$ 로 나타나 집단간 차이가 유의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1-2개 가해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폭력거부에 대해 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6문항 중 5문항에서 의식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총점 5에 대해 없음 3.64, 1-2개 3.53, 3-10개 3.32)라는 문항에 대해 가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 수록 덜 동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가해 경험의 적은 수록 폭력 사용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질서유지를 위한 폭력사용에 대해서는 가해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더욱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폭력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총점 5에 대해 없음 4.37, 1-2개 4.30, 3-10개 4.00)라는 문항에 대해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덜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1-2개 가해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폭력을 사용하면 일이 더욱 복잡해 진다’(총점 5에 대해 없음 3.89, 1-2개 3.82, 3-10개 3.57)라는 문항에 대해 가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 수록 덜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1-2개 가해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총점 5에 대해 없음 3.26, 1-2개 3.24, 3-10개 2.95)라는 문항에 대해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덜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1-2개 가해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아무리 결과가 좋을 지라도 폭력의 사용은 합리화될 수 없다’(총점 5에 대해 없음 3.73, 1-2개 3.55, 3-10개 3.25)라는 문항에 대해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덜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1-2개 가해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 올 뿐이다’(총점 5에 대해 없음 4.22, 1-2개 4.15, 3-10개 3.95)라는 문항에 대해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덜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상 개별문항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알아본 바와 같이 폭력에 대한 보편적 거부는 폭력경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는 의식차이가 별로 없으나 폭력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있는 집단에 비해 더욱 거부적인 태도를 취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폭력에 대한 구체적 거부」로 분류된 유형의 폭력의식에 있어서도 보편적 거부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범위 5-25에 대해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은 20.11, 1-2개의 가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19.73, 3-10개의 가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19.11이며,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 없는 집단 \* 3-10개 가

〈표 44〉 폭력가해경험과 폭력에 대한 보편적 거부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23.11 | 3.93 | 228 | F = 11.011<br>p = .0000 |
| 1-2개 가해  | 22.60 | 4.08 | 251 |                         |
| 3-10개 가해 | 21.06 | 4.05 | 130 |                         |

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 역시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폭력거부에 대해 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5문항 중 2문항에서 의식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서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총점 5에 대해 없음 4.40, 1-2개 4.24, 3-10개 4.13)라는 문항에 대해 가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 수록 덜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라고 볼 수 없다’(총점 5에 대해 없음 4.29, 1-2개 4.05, 3-10개 3.86)라는 문항에 대해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덜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1-2개 가해집단,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표 45〉 폭력가해경험과 폭력에 대한 구체적 거부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20.11 | 3.28 | 228 | F = 3.712<br>p = .0250 |
| 1-2개 가해  | 19.73 | 3.24 | 251 |                        |
| 3-10개 가해 | 19.11 | 3.59 | 130 |                        |

「폭력의 범위」로 분류된 유형의 폭력의식에 있어서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범위 3-15에 대해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은 12.29, 1-2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12.08, 3-10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11.10이며,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1-2개 가해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폭력의 범위를 좁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3문항 모두 의식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욕설이나 저주와 같은 폭언도 폭력에 해당한다’(총점 5에 대해 없음 4.00, 1-2개 3.93, 3-10개 3.64)라는 문항에 대해 가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 수록 덜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1-2개 가해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공공질서를 위반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도 폭력에 해당한다’(총점 5에 대해 없음 3.75, 1-2개 3.73, 3-10개 3.43)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덜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1-2개 가해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길에서 여자에게 음란한 말이나 몸짓으로 희롱하는 것은 성폭력에 해당한다’(총점 5에 대해 없음 4.54, 1-2개 4.41, 3-10개 4.03)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덜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1-2개 가해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표 46〉 폭력가해경험과 폭력의 범위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12.29 | 2.28 | 228 | F = 12.641<br>p = .0000 |
| 1- 2개 가해 | 12.08 | 2.18 | 251 |                         |
| 3-10개 가해 | 11.10 | 2.18 | 130 |                         |

「폭력의 효용성」으로 분류된 유형의 폭력의식에 있어서는 범위 3-15에 대해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은 7.43, 1-2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7.99, 3-10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8.25이며,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1-2개 가해,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폭력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3문항 중 1문항에서 의식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가 좋다면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총점 5에 대해 없음 2.33, 1-2개 2.53, 3-10개 2.74)라는 문항에 대해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더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표 47〉 폭력가해경험과 폭력의 효용성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7.43 | 2.66 | 228 | F = 4.839<br>p = .0082 |
| 1-2개 가해  | 7.99 | 2.64 | 251 |                        |
| 3-10개 가해 | 8.25 | 2.40 | 130 |                        |

「친지에 대한 폭력허용」으로 분류된 유형의 폭력의식에 있어서는 범위 4-20에 대해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은 8.04, 1-2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8.10, 3-10개의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9.53이며,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1-2개 가해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가까운 사람끼리의 폭력 사용을 허용하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총 4문항 중 3문항에서 외식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간의 폭력은 그 가정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총점 5에 대해 없음 2.24, 1-2개 2.14, 3-10개 2.68)라는 문항에 대해 가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 수록 더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1-2개 가해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가까운 사람끼리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총점 5에 대해 없음 2.16, 1-2개 2.14, 3-10개 2.48)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가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이 더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1-2개 가해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 구타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총점 5에 대해 없음 1.91, 1-2개 1.98, 3-10개 2.30)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가해경험이 많을 수록 더 동의하고 있다.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 \* 3-10개 가해집단, 1-2개 가해집단 \* 3-10개 가해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상 개별문항에 대

한 집단간 차이를 알아 본 바와 같이 친지에 대한 폭력이나 보복성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경험의 유무 보다는 폭력경험이 없거나 적은 집단과 폭력경험이 많은 집단간의 차이가 커 폭력 가해경험이 3개 이상인 집단의 경우 이에 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표 48〉 폭력가해경험과 친지에 대한 폭력허용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8.04 | 2.57 | 228 |          |
| 1— 2개 가해 | 8.10 | 2.52 | 251 | F=15.927 |
| 3—10개 가해 | 9.53 | 2.87 | 130 | p=.0000  |

그 밖에 「훈육을 위한 폭력허용」과 「폭력의 필요성」으로 분류된 유형의 의식에 있어서는 폭력가해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폭력 피해경험에 따른 의식보다는 폭력 가해경험에 따른 의식의 차이가 두드러 졌으나 전반적으로 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 따른 의식차이의 일반적 경향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앞의 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상관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청소년과 가해청소년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폭력피해나 가해의 경험이 많을 수록 폭력사용에 대해 덜 거부하고 있고 그 효용성은 더 인정하고 있어 폭력사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의식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집단간의 차이만을 분석하고 있어 경험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 의식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LISREL을 사용해 분석한 한 선행연구(Menard & Huizinga, 1994 : 24)에 따르면 의식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다는 행동

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본 연구의 경우 폭력경험이 있는 청소년이나 없는 청소년 모두 폭력에 관한 의식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편이나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청소년들도 폭력이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정도에 있어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폭력사용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따라서 이들 폭력 경험에 있는 청소년들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선천적으로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다소 의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 제 4 장 결 론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폭력에 관한 의식과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하여 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실제 폭력적인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 보고자 한 것이다. 조사 결과 나타난 청소년의 폭력 의식 및 실태, 폭력 의식과 행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대부분 폭력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폭력을 나쁜 것으로 보는 절대적인 거부라기 보다는 폭력보다는 다른 무엇이 더 낫다고 하는 상대적인 거부이다. 또한 폭력 사용의 효용성도 인정하지 않는 편이며 특히 자신들의 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한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폭언이나 질서위반, 성희롱 등에 대해서도 폭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폭력사용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심한 체벌이 아닌 일반적인 훈육을 위한 폭력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 훈육을 위한 매도 폭력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다소 긍정적인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교급과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는데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폭력에 대해 더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폭언이나 질서위반, 성희롱을 폭력으로 보는 데 더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폭력의 문제해결 능력으로써의 효용성과 훈육을 위한 폭력사용에 대해서도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동의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폭력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폭력의 효용성에 관해서는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덜 동의하고 있어 나이가 많은 청소년의 경우 다소 폭력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과반수 정도가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금품갈취나 협박, 폭행, 학교기물 파괴 등의 폭력적인 사건들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언이나 싸움은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는 청소년도 매우 많았다.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이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인간관계는 주로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이나 동급생끼리 또는 선배가 후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후배가 선배를 폭행하거나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조사대상 청소년 4명중 3명 정도는 지난 일년동안 친구나 교내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으로 부터 무엇이든지 한가지라도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폭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학교환경이 전반적으로 폭력화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 주는 결과이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폭력범죄로 분류되는 금품갈취, 협박, 폭행 중 한가지라도 경험한 청소년이 4명중 1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나 불량배가 아닌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내폭력만을 조사한 결과임을 감안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경험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많았다.

네째, 조사대상 청소년은 가해경험에 있어서도 5명중 3명 정도가 지난 일년동안 친구나 교내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에게 무엇이든지 한가지라도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폭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들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폭력범죄로 분류되는 금품갈취, 협박, 폭행 중 한가지라도 가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명중 1명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대부분이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위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폭력 전반에 대해 덜 부정적이고 폭력의 문제해결 능력도 인정하는 편이며 가까운 사람끼리의 폭력사용도 허용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폭력에 대해 수용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훈육을 위한 폭력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지위비행 중에서도 음주보다는 흡연을 하는 집단이 더 차이가 많았다. 또한 지위비행과 폭력피해 경험은 관계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폭력가해 경험과는 관계가 있어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실수록 폭력 가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음주보다는 흡연과의 상관이 높았다.

여섯째, 폭력피해 경험과 폭력가해 경험은 전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당할 수록 가해도 많이 하고 가해를 많이 할 수록 피해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폭행 피해 및 폭력씨를 가 입강요는 폭력 가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일곱째, 폭력의식과 폭력경험의 관계는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모두에서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 수록 폭력사용에 대해 덜 거부하고 있고 그 효용성은 더 인정하고 있어 폭력사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태도를 취해 의식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고 가해를 하는 청소년도 여자 보다는 남자가 더 많으며 지위비행의 경험이 많을 수록 폭력경험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

데, 폭력의식에 있어서는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이, 지위비행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 보다는 있는 청소년이, 폭력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는 있는 청소년이 폭력에 대해 덜 거부적이고 허용적인 의식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폭력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폭력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폭력피해 청소년과 가해 청소년은 많은 경우 일치하고 있어 일부 폭력적인 청소년들이 서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의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안이나 주변에서의 폭력 사건의 발생은 매우 보편적인 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과 그들의 교육환경이 폭력화된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기 보다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각 가정,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배태되어 있는 성인들의 폭력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성세대의 폭력성 문화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 져야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 구성원 모두의 다각적인 접근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폭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개선을 해 나아가야 하겠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크게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통한 대책과 사회와 국가의 사회개량을 통한 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늘 폭력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학생청소년 전반에 대해 올바른 인성교육을 실시해 청소년 전체의 도덕성을 높임으로써 청소년들이 폭력사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길러 주어야 한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 지나친 체벌을 자제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지도를 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부부간에도 폭력적인 언사나 행동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가치교육을 실시해야 함은 물론 특별활동을 통해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을 진정한 인간관계로 대해 지나친 체벌은 지양하고 학생들간의 친교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사회 전체를 학교화해 청소년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유해환경의 정화를 위한 마을 단위의 노력과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유해 매체에 대한 시민 감시활동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전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놀이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국가는 각종 법규와 제도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이나 매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비진학자에 대한 직업교육의 실시나 학력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사회 각 분야의 다각적인 접근으로 청소년들이 폭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국가 사회적인 노력과 학교 및 가정에서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는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교 생활에서 의미있는 일을 찾을 수 없고 만족을 얻을 수도 없다. 그들의 남아도는 힘과 정력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가 쉽다. 따라서 이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활성화해 공부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강조한 나머지 잠재적 폭력성향이 있는 문제학생들에게는 외면당하기 쉽다. 물론 청소년활동이 불건전한 학생들의 개별적이고 비공식화된 집단활동만큼의 재미를 줄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나름대로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들에게 생산적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청소년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이 남는 시간과 정력을 부정적인 일에 허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폭력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폭력사용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의식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청소년폭력이 발생할 때 이들 청소년에 대해 지나친 엄벌주의를 취하거나 방치해 둘 경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폭력 사용에 대해 더욱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상담실이나 청소년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가로 하여금 그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여러가지 개인적인 요인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회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요인들을 가능한 조정하며 그들이 폭력사용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가치관정립프로그램이나 심성계발훈련 등의 수련활동에 참여시켜 자기개발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통한 선행의 보람을 알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복수심으로 인해 또다른 폭력 가해청소년이 되는 일이 없도록 부모나 교사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정신적인 충격을 잊도록 하여 학교가는 일을 두려워 하지 않게 도와 주어

야 할 것이다.

때리는 자녀나 맞는 자녀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소중한 자식이다. 못된 자식이라 하여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아직 미성숙한 시기에 잘못을 저지른 폭력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는 이러한 부모된 마음으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른들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거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다’는 등의 말로 사태를 비관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차피 학교에 갈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세상은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다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어 청소년들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봉기(1984), “음성 씨어클의 현황과 지도사례”, 사학, 여름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녀(1993),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체벌 실태에 관한 교육적 고려”,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1994), “학교문화와 청소년 폭력”, 청소년과 폭력, 심포지움 자료집, 충청남도 청소년종합상담실.
- 김준호, 김선애(199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외 2인(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외 3인(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계현(1994), “충남지역 청소년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보고”, 청소년과 폭력, 심포지움 자료집, 충청남도 청소년종합상담실.
- 박종삼(1986), “청소년 불량씨어클과 지도자의 역할” 청소년, 봄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 박준희(1984), “학교폭력의 배경과 대책방향”, 새교육, 4월호, 대한교육연합회.
- 심영희(1988), “우리나라의 학생폭력”,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이재창(1987), “청소년의 폭력화”, 청협, 겨울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병재(1985), “청소년과 폭력”, 한국청소년, 여름호, 한국청소년연맹.

한명섭(1989), “폭력 외설과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 사회복지, 여름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Edelman, Carol Faye Stern(1987), “Attitudes toward Viol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risona.

Jenkins, Richard L. & Gowdey, Eve Blodgett(1981), Prediction of Violence,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Publisher.

Landau, Elaine(1990), Teenage Violence, Englewood Cliffs : Julian Messner.

McConnell, Elizabeth(1994), “High School Student : An Assessment of Their Knowledge of Gangs”, Youth & Society, Vol. 26 No. 2, 256-276.

Menard, Scott & Huizinga, David(1994), “Changes in Conventional Attitudes Delinquent Behavior in Adolescence”, Youth & Society, Vol. 26 No. 1, 23-53.

Morse, Barbara Jean(1986), “Self-Reported Juvenile Violent Offenders and Their Offending Careers : A Descriptive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National Committee on Violence(1990), Violence : Directions for Australia, Canberra :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

nology.

Salts, et al.(1995), "Predictive Variables of Violent Behavior in Adolescent Males", *Youth & Society*, Vol. 26 No. 3, 377-399.

Schuster, Richard Lawrenc(1978), "Violent Juvenile Offenders : A Longitudinal Cohort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Segerdal, Alastair(1988), *Assault on Violence : You need not be a Victim*, Washington : Arcadia-Ford Publishing.

Smith, Danny Myles(1981), "Personal Violent Crim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Sommers, Ira & Baskin, Deborah(1994), "Factors Related to Female Adolescent Initiation into Violent Street Crime", *Youth & Society*, Vol. 25 No. 4, 468-489.

Wolfgang, Marvin E. & Weiner, Neil Alan(1982), *Criminal Violence*,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부록 1 : 설문지



##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

---

인 사 말

---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연수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청소년들이 폭력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주변에서 폭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설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5. 7.

한국청소년개발원

---

연락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이춘화(578-7926)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하거나 괄호 안에 써 주십시오.

-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자                      ②여자
- 현재의 부모님은 다음 사항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두분 모두 친부모                      ②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계신다.  
③친부모 한 분과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 ④두분 모두 양부모  
⑤두분 모두 안 계신다.
- 다음 보기중에서 부모님의 학력에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괄호안에 적어 주십시오.  
①국민학교 졸업 이하                      ②중학교 중퇴 및 졸업  
③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④대학교 중퇴 및 졸업 이상  
1) 아버지(                      )                      2) 어머니(                      )
- 부모님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 아버지(                      )                      2) 어머니(                      )
-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①70만원 미만                      ②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③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④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⑤200만원 이상
-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른쪽에서 당신이 해 본 정도와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 전혀<br>없음 | 거의<br>없음 | 가끔 | 자주 | 항상 |
|----------|----------|----|----|----|
|----------|----------|----|----|----|

- |                             |   |   |   |   |   |
|-----------------------------|---|---|---|---|---|
| 1) 담배 피우기 .....             | 1 | 2 | 3 | 4 | 5 |
| 2) 술 마시기 .....              | 1 | 2 | 3 | 4 | 5 |
| 3) 본드, 부탄가스 등의 환각제 사용 ..... | 1 | 2 | 3 | 4 | 5 |
- 
- 당신은 최근 1년동안 학교에서 인정하는 단체나 씨클에 가입해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 당신은 최근 1년동안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음성씨클에 가입해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폭력씨클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잘 모르겠다.

→ 9-1. 있다면 몇개나 있습니까? 아는대로 적어 주십시오.(    ) 개

\* 다음은 폭력에 관한 여러가지 견해들입니다. 오른쪽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 전혀<br>동의하지<br>않는다 | 동의하지<br>않는<br>편이다 | 그저<br>그렇<br>다 | 동의<br>하는<br>편이다 | 아주<br>동의<br>한다 |
|-------------------|-------------------|---------------|-----------------|----------------|
|-------------------|-------------------|---------------|-----------------|----------------|

- |                                                   |   |   |   |   |   |
|---------------------------------------------------|---|---|---|---|---|
| 1.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 1 | 2 | 3 | 4 | 5 |
| 2. 폭력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 1 | 2 | 3 | 4 | 5 |
| 3. 폭력을 사용하면 일이 더욱 복잡해진다. ....                     | 1 | 2 | 3 | 4 | 5 |
| 4. 법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           | 1 | 2 | 3 | 4 | 5 |
| 5. 결과가 좋다면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                   | 1 | 2 | 3 | 4 | 5 |
| 6.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 1 | 2 | 3 | 4 | 5 |
| 7. 심한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는 폭력이라고 볼 정도의 심한 처벌이 필요하다. .... | 1 | 2 | 3 | 4 | 5 |
| 8. 아무리 결과가 좋을 지라도 폭력의 사용은 합리화될 수 없다. ....         | 1 | 2 | 3 | 4 | 5 |
| 9.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데는 폭력이 대화보다 낫다. ....              | 1 | 2 | 3 | 4 | 5 |
| 10.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뿐이다. ....                    | 1 | 2 | 3 | 4 | 5 |
| 11. 자식을 바로 키우려면 매를 아껴서는 안된다. ....                 | 1 | 2 | 3 | 4 | 5 |
| 12.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 1 | 2 | 3 | 4 | 5 |
| 13. 가족간의 폭력은 그 가정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  | 1 | 2 | 3 | 4 | 5 |
| 14. 아이들을 야단치기 위해 때리는 것도 폭력이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     | 1 | 2 | 3 | 4 | 5 |
| 15. 폭력은 사회문제이므로 가족간의 폭력 사용도 방치해서는 안된다. ....       | 1 | 2 | 3 | 4 | 5 |

| 전혀<br>동의하지<br>않는다 | 동의하지<br>않는<br>편이다 | 그저<br>그렇<br>다 | 동의<br>하는<br>편이다 | 아주<br>동의<br>한다 |
|-------------------|-------------------|---------------|-----------------|----------------|
|-------------------|-------------------|---------------|-----------------|----------------|

- |                                                          |   |   |   |   |   |
|----------------------------------------------------------|---|---|---|---|---|
| 16.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은 학생을 때릴 수 있다. ....           | 1 | 2 | 3 | 4 | 5 |
| 17.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은 부모를 때려서는 안된다. ....                      | 1 | 2 | 3 | 4 | 5 |
| 18. 질서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                | 1 | 2 | 3 | 4 | 5 |
| 19.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매를 때리기 보다는 말로 타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 1 | 2 | 3 | 4 | 5 |
| 20. 학교에서 선도부원이 교칙을 어긴 학생을 때리는 일은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          | 1 | 2 | 3 | 4 | 5 |
| 21. 부부간의 폭력사용은 사랑싸움이므로 말할 필요가 없다. ....                   | 1 | 2 | 3 | 4 | 5 |
| 22.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라고 볼 수 없다. ....                | 1 | 2 | 3 | 4 | 5 |
| 23. 가까운 사람(가족, 친구 등)끼리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 ....         | 1 | 2 | 3 | 4 | 5 |
| 24. 심한 욕설이나 저주와 같은 폭언도 폭력에 해당한다. ....                    | 1 | 2 | 3 | 4 | 5 |
| 25.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때리는 매는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 ....               | 1 | 2 | 3 | 4 | 5 |
| 26. 나와 가까운 사람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 구타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 ....          | 1 | 2 | 3 | 4 | 5 |
| 27. 공공질서를 위반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도 일종의 폭력이다. ....            | 1 | 2 | 3 | 4 | 5 |
| 28. 길에서 지나가는 여자에게 음란한 말이나 몸짓으로 희롱하거나 추근대는 것은 성폭력이다. .... | 1 | 2 | 3 | 4 | 5 |

\* 다음에 제시한 행동들을 잘 읽고 당신이 최근 1년동안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잘 생각해 보고 오른쪽에서 당신이 경험한 횟수와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 한번도<br>없음 | 일년에<br>한번<br>정도 | 일년에<br>두세번<br>정도 | 한달에<br>한번<br>정도 | 한달에<br>두세번<br>이상 |
|-----------|-----------------|------------------|-----------------|------------------|
|-----------|-----------------|------------------|-----------------|------------------|

- |                                                                 |   |   |   |   |   |
|-----------------------------------------------------------------|---|---|---|---|---|
| 1. 친한 친구로 부터 심한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을 들은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2. 친한 친구로 부터 맞아서 몸이 멍들거나 상처가 난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3. 친한 친구가 나에게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4. 우리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으로부터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5. 우리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이 나에게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6. 우리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이 나를 위협하거나 때려 강제로 물건이나 돈을 빼앗아간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7. 우리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이 나의 물건이나 돈은 빼앗지 않고 협박만 한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8. 우리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이 나의 물건이나 돈은 빼앗지 않고 폭행만 한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9. 우리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를 집단으로 폭행한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10. 우리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이 나에게 폭력씨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다음에 제시한 행동들을 잘 읽고 당신이 최근 1년동안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잘 생각해 보고 오른쪽에서 당신이 경험한 횟수와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 한번도<br>없음 | 일년에<br>한 번<br>정 도 | 일년에<br>두세번<br>정 도 | 한달에<br>한 번<br>정 도 | 한달에<br>두세번<br>이 상 |
|-----------|-------------------|-------------------|-------------------|-------------------|
|-----------|-------------------|-------------------|-------------------|-------------------|

- |                                                             |   |   |   |   |   |
|-------------------------------------------------------------|---|---|---|---|---|
| 1. 나의 친한 친구에게 심한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을 했던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2. 나의 친한 친구를 때려 그의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게 했던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3. 나의 친한 친구에게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4. 우리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에게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을 한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5. 우리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에게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을 한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6. 우리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을 위협하거나 때려 강제로 물건이나 돈을 빼앗은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7. 우리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을 물건이나 돈은 빼앗지 않고 협박한 한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8. 우리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을 물건이나 돈은 빼앗지 않고 폭행한 한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9. 우리 학교의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10. 학교 기물을 부순 적이 있다. ....                                   | 1 | 2 | 3 | 4 | 5 |

- \*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른쪽에서 당신이 느끼는 정도와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 전혀<br>없음 | 거의<br>없음 | 가끔<br>있음 | 자주<br>있음 | 항상<br>있음 |
|----------|----------|----------|----------|----------|
|----------|----------|----------|----------|----------|

- |                                 |   |   |   |   |   |
|---------------------------------|---|---|---|---|---|
| 1. 욕이나 저주의 말 등의 폭언 .....        | 1 | 2 | 3 | 4 | 5 |
| 2.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물건 던지기 ..... | 1 | 2 | 3 | 4 | 5 |
| 3. 위협하거나 때려서 물건이나 돈 빼앗기 .....   | 1 | 2 | 3 | 4 | 5 |
| 4. 위협하거나 협박하기 .....             | 1 | 2 | 3 | 4 | 5 |
| 5.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때리는 일 .....   | 1 | 2 | 3 | 4 | 5 |
| 6.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는 일 .....     | 1 | 2 | 3 | 4 | 5 |
| 7. 두사람이 서로 때리며 싸우기 .....        | 1 | 2 | 3 | 4 | 5 |
| 8. 집단으로 패싸움하기 .....             | 1 | 2 | 3 | 4 | 5 |
| 9. 학교내 기물파괴 .....               | 1 | 2 | 3 | 4 | 5 |

- \*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는 아래에 제시한 사람들 간에 폭력적인 일들(심한 체벌, 심한 반항, 폭언, 매질, 폭행, 협박, 금품갈취 등)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른쪽에서 당신이 느끼는 정도와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 전혀<br>없음 | 거의<br>없음 | 가끔<br>있음 | 자주<br>있음 | 항상<br>있음 |
|----------|----------|----------|----------|----------|
|----------|----------|----------|----------|----------|

- |                    |   |   |   |   |   |
|--------------------|---|---|---|---|---|
| 1. 선생님이 학생에게 ..... | 1 | 2 | 3 | 4 | 5 |
| 2. 학생이 선생님에게 ..... | 1 | 2 | 3 | 4 | 5 |
| 3. 선배가 후배에게 .....  | 1 | 2 | 3 | 4 | 5 |
| 4. 후배가 선배에게 .....  | 1 | 2 | 3 | 4 | 5 |
| 5. 선생님들끼리 .....    | 1 | 2 | 3 | 4 | 5 |
| 6. 동급생들끼리 .....    | 1 | 2 | 3 | 4 | 5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 : 통계표

## 1. 문항별 폭력외식의 집단차이

## 〈부록표 1-1〉 폭력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성별 남 자 | 4.19 | .81  | 299 | $t = -2.17$ |
| 여 자    | 4.34 | .80  | 310 | $p = .030$  |

## 〈부록표 1-2〉 아무리 결과가 좋을 지라도 폭력의 사용은 합리화 될 수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성별 남 자 | 3.45 | 1.16 | 299 | $t = -2.23$ |
| 여 자    | 3.65 | 1.09 | 310 | $p = .026$  |

## 〈부록표 1-3〉 질서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성별 남 자 | 4.18 | .99  | 299 | $t = -2.34$ |
| 여 자    | 4.37 | .98  | 310 | $p = .019$  |

## 〈부록표 1-4〉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매를 때리기 보다는 말로 타일러야 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성별 남 자 | 3.83 | .96  | 299 | $t = -3.03$ |
| 여 자    | 4.06 | .90  | 310 | $p = .003$  |

## 〈부록표 1-5〉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라고 할 수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성별 남 자 | 3.99 | 1.14 | 299 | $t = -2.42$ |
| 여 자    | 4.21 | 1.10 | 310 | $p = .016$  |

## 〈부록표 1-6〉 심한 욕설이나 저주와 같은 폭언도 폭력에 해당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교급 중 학 생 | 3.78 | 1.14 | 297 | $t = -2.60$ |
| 고등학생     | 4.01 | 1.02 | 312 | $p = .010$  |
| 성별 남 자   | 3.76 | 1.05 | 299 | $t = -3.13$ |
| 여 자      | 4.03 | 1.10 | 310 | $p = .002$  |

〈부록표 1-7〉 길에서 여자에게 음란한 말이나 몸짓으로 희롱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성별 남 자 | 4.04 | 1.12 | 299 | $t = -8.95$ |
| 여 자    | 4.70 | .63  | 310 | $p = .000$  |

〈부록표 1-8〉 법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교급 중 학 생 | 2.66 | 1.26 | 297 | $t = -3.49$ |
| 고등학생     | 3.02 | 1.26 | 312 | $p = .001$  |
| 성별 남 자   | 2.95 | 1.28 | 299 | $t = 2.06$  |
| 여 자      | 2.74 | 1.26 | 310 | $p = .040$  |

〈부록표 1-9〉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은 학생을 때릴 수 있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교급 중 학 생 | 3.24 | 1.16 | 297 | $t = 3.20$ |
| 고등학생     | 2.92 | 1.30 | 312 | $p = .001$ |
| 성별 남 자   | 3.30 | 1.24 | 299 | $t = 4.39$ |
| 여 자      | 2.86 | 1.21 | 310 | $p = .000$ |

〈부록표 1-10〉 자식을 바로 키우려면 매를 아껴서는 안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성별 남 자 | 3.31 | 1.23 | 299 | $t = 3.96$ |
| 여 자    | 2.93 | 1.12 | 310 | $p = .000$ |

〈부록표 1-11〉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때리는 매는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성별 남 자 | 3.14 | 1.25 | 299 | $t = 3.22$ |
| 여 자    | 2.82 | 1.24 | 310 | $p = .001$ |

〈부록표 1-12〉 가족간의 폭력은 그 가정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과  
관여할 일이 아니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성별 남 자 | 2.42 | 1.16 | 299 | t=2.80 |
| 여 자    | 2.17 | 1.11 | 310 | p=.005 |

〈부록표 1-13〉 부부간의 폭력사용은 사랑싸움으로 말릴 필요가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성별 남 자 | 2.03 | 1.00 | 299 | t=4.88 |
| 여 자    | 1.67 | .82  | 310 | p=.000 |

## 2. 문항별 청소년 지위비행과 폭력·의식의 관계

〈부록표 2-1〉 폭력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 음 | 4.32 | .78  | 462 | t=3.08 |
| 있 음      | 4.07 | .87  | 138 | p=.002 |
| 음주경험 없 음 | 4.35 | .80  | 290 | t=2.46 |
| 있 음      | 4.19 | .81  | 311 | p=.014 |

〈부록표 2-2〉 아무리 결과가 좋을 지라도 폭력의 사용은 합리화될  
수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음주경험 없 음 | 3.68 | 1.10 | 290 | t=2.52 |
| 있 음      | 3.45 | 1.14 | 311 | p=.012 |

〈부록표 2-3〉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 음 | 3.58 | 1.10 | 462 | t=2.39 |
| 있 음      | 3.38 | 1.04 | 138 | p=.018 |
| 음주경험 없 음 | 3.63 | 1.09 | 290 | t=2.41 |
| 있 음      | 3.42 | 1.08 | 311 | p=.016 |

〈부록표 2-4〉 질서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유지되어  
야 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 음 | 4.33 | .96  | 462 | t=2.48 |
| 있 음      | 4.08 | 1.06 | 138 | p=.014 |

〈부록표 2-5〉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라고 볼 수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 음 | 4.18 | 1.09 | 462 | t=3.09 |
| 있 음      | 3.82 | 1.22 | 138 | p=.002 |

〈부록표 2-6〉 심한 욕설이나 저주와 같은 폭언도 폭력에 해당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 음 | 3.96 | 1.09 | 462 | t=2.59 |
| 있 음      | 3.70 | 1.04 | 138 | p=.010 |

〈부록표 2-7〉 공공질서를 위반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도 폭력에 해당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 음 | 3.77 | 1.06 | 462 | t=4.22 |
| 있 음      | 3.37 | .96  | 138 | p=.000 |

〈부록표 2-8〉 길에서 여자에게 음란한 말이나 몸짓으로 희롱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 음 | 4.46 | .91  | 462 | t=3.68 |
| 있 음      | 4.09 | 1.06 | 138 | p=.000 |
| 음주경험 없 음 | 4.46 | .95  | 290 | t=2.01 |
| 있 음      | 4.30 | .96  | 311 | p=.045 |

〈부록표 2-9〉 결과가 좋다면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 음 | 2.41 | 1.22 | 462 | t=-3.68 |
| 있 음      | 2.83 | 1.19 | 138 | p=.000  |
| 음주경험 없 음 | 2.39 | 1.23 | 290 | t=-2.06 |
| 있 음      | 2.60 | 1.20 | 311 | p=.040  |

〈부록표 2-10〉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은 학생을 때릴 수 있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 음 | 3.15 | 1.23 | 462 | t=2.55 |
| 있 음      | 2.84 | 1.27 | 138 | p=.012 |
| 음주경험 없 음 | 3.19 | 1.22 | 290 | t=2.27 |
| 있 음      | 2.96 | 1.25 | 311 | p=.024 |

〈부록표 2-11〉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때리는 때는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 례 수 | 통 계 치  |
|---------|------|------|-------|--------|
| 흡연경험 없음 | 3.05 | 1.24 | 462   | t=2.14 |
| 있 음     | 2.79 | 1.26 | 138   | p=.034 |

〈부록표 2-12〉 자식을 바로 키우려면 매를 아껴서는 안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음주경험 없음 | 3.24 | 1.18 | 290 | t=2.36 |
| 있음      | 3.01 | 1.19 | 311 | p=.018 |

〈부록표 2-13〉 가족간의 폭력은 그 가정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음 | 2.21 | 1.12 | 462 | t=-3.26 |
| 있 음     | 2.57 | 1.15 | 138 | p=.001  |

〈부록표 2-14〉 부부간의 폭력사용은 사랑싸움이므로 말릴 필요가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음 | 1.79 | .89  | 462 | t=-2.26 |
| 있음      | 2.01 | 1.01 | 138 | p=.025  |

〈부록표 2-15〉 가까운 사람끼리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음 | 2.16 | 1.11 | 462 | t=-2.51 |
| 있 음     | 2.45 | 1.20 | 138 | p=.013  |

〈부록표 2-16〉 나와 가까운 사람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 구타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흡연경험 없음 | 1.97 | 1.01 | 462 | t=-2.18 |
| 흡연경험 있음 | 2.18 | 1.01 | 138 | p=.030  |
| 음주경험 없음 | 1.92 | 1.05 | 290 | t=-2.21 |
| 음주경험 있음 | 2.11 | .97  | 311 | p=.027  |

### 3. 문항별 폭력 피해경험과 폭력 의식의 관계

#### 〈부록표 3-1〉 폭력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피해경험 없음  | 4.40 | .77  | 162 |         |
| 1- 2개 피해 | 4.27 | .79  | 241 | F=3.892 |
| 3-10개 피해 | 4.16 | .84  | 206 | P=.0209 |

#### 〈부록표 3-2〉 폭력은 사회문제이므로 가족간의 폭력사용도 방지해서 는 안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피해경험 없음  | 3.89 | 1.06 | 162 |         |
| 1- 2개 피해 | 3.62 | 1.09 | 241 | F=3.339 |
| 3-10개 피해 | 3.64 | 1.16 | 206 | P=.0361 |

#### 〈부록표 3-3〉 질서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피해경험 없음  | 4.46 | .93  | 162 |         |
| 1- 2개 피해 | 4.27 | .99  | 241 | F=4.904 |
| 3-10개 피해 | 4.14 | 1.02 | 206 | P=.0077 |

#### 〈부록표 3-4〉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라고 할 수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피해경험 없음  | 4.31 | 1.06 | 162 |         |
| 1- 2개 피해 | 4.15 | 1.13 | 241 | F=6.767 |
| 3-10개 피해 | 3.89 | 1.13 | 206 | P=.0012 |

#### 〈부록표 3-5〉 심한 욕설이나 저주와 같은 폭언도 해당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피해경험 없음  | 4.09 | 1.08 | 162 |         |
| 1- 2개 피해 | 3.81 | 1.05 | 241 | F=3.519 |
| 3-10개 피해 | 3.84 | 1.12 | 206 | P=.0302 |

〈부록표 3-6〉 길에서 여자에게 음란한 말이나 몸짓으로 희롱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피해경험 없음  | 4.64 | .78  | 162 |          |
| 1- 2개 피해 | 4.38 | .95  | 241 | F=11.741 |
| 3-10개 피해 | 4.17 | 1.03 | 206 | P=.0000  |

〈부록표 3-7〉 부부간의 폭력사용은 사랑싸움이므로 말릴 필요가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피해경험 없음  | 1.64 | .82  | 162 |         |
| 1- 2개 피해 | 1.92 | .93  | 241 | F=5.374 |
| 3-10개 피해 | 1.92 | .99  | 206 | P=.0049 |

#### 4. 문항별 폭력 가해경험과 폭력 의식의 관계

〈부록표 4-1〉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3.64 | 1.04 | 228 |         |
| 1- 2개 가해 | 3.53 | 1.13 | 251 | F=3.440 |
| 3-10개 가해 | 3.32 | 1.09 | 130 | P=.0327 |

〈부록표 4-2〉 폭력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4.37 | .80  | 228 |         |
| 1- 2개 가해 | 4.31 | .77  | 251 | F=9.074 |
| 3-10개 가해 | 4.01 | .82  | 130 | P=.0001 |

〈부록표 4-3〉 폭력을 사용하면 일이 더욱 복잡해진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3.89 | .99  | 228 |         |
| 1- 2개 가해 | 3.82 | 1.04 | 251 | F=4.123 |
| 3-10개 가해 | 3.58 | .98  | 130 | P=.0167 |

〈부록표 4-4〉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3.26 | 1.18 | 228 |         |
| 1- 2개 가해 | 3.24 | 1.22 | 251 | F=3.198 |
| 3-10개 가해 | 3.95 | 1.13 | 130 | P=.0416 |

〈부록표 4-5〉 아무리 결과가 좋을 지라도 폭력의 사용은 합리화 될 수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3.73 | 1.11 | 228 |         |
| 1- 2개 가해 | 3.55 | 1.09 | 251 | F=7.652 |
| 3-10개 가해 | 3.25 | 1.16 | 130 | P=.0005 |

〈부록표 4-6〉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뿐이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22  | .95  | 3228 |         |
| 1- 2개 가해 | 4.15 | .97  | 251  | F=3.246 |
| 3-10개 가해 | 3.95 | 1.14 | 130  | P=.0396 |

〈부록표 4-7〉 질서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4.40 | .94  | 228 |         |
| 1- 2개 가해 | 4.24 | .99  | 251 | F=3.547 |
| 3-10개 가해 | 4.13 | 1.05 | 130 | P=.0294 |

〈부록표 4-8〉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는 진정한 질서라고 할 수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4.29 | 1.04 | 228 |         |
| 1- 2개 가해 | 4.05 | 1.20 | 251 | F=6.673 |
| 3-10개 가해 | 3.86 | 1.08 | 130 | P=.0014 |

〈부록표 10〉 공공질서를 위반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도 폭력에 해당한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3.75 | 1.06 | 228 |         |
| 1- 2개 가해 | 3.73 | .99  | 251 | F=4.525 |
| 3-10개 가해 | 3.43 | 1.12 | 130 | P=.0112 |

〈부록표 4-11〉 길에서 여자에게 음란한 말이나 몸짓으로 희롱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4.54 | .84  | 228 | F=12.480<br>P=.000 |
| 1- 2개 가해 | 4.41 | .93  | 251 |                    |
| 3-10개 가해 | 4.03 | 1.11 | 130 |                    |

〈부록표 4-12〉 결과가 좋다면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2.33 | 1.21 | 228 | F=4.705<br>P=.0094 |
| 1- 2개 가해 | 2.53 | 1.23 | 251 |                    |
| 3-10개 가해 | 2.74 | 1.23 | 130 |                    |

〈부록표 4-13〉 가족간의 폭력은 그 가정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2.24 | 1.13 | 228 | F=10.108<br>P=.0000 |
| 1- 2개 가해 | 2.14 | 1.05 | 251 |                     |
| 3-10개 가해 | 2.68 | 1.21 | 130 |                     |

〈부록표 4-14〉 가까운 사람끼리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2.16 | 1.12 | 228 | F=4.530<br>P=.0111 |
| 1- 2개 가해 | 2.14 | 1.07 | 251 |                    |
| 3-10개 가해 | 2.48 | 1.23 | 130 |                    |

〈부록표 4-15〉 나와 가까운 사람을 때린 사람을 찾아내 구타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 집 단      | 평 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통계치                |
|----------|------|------|-----|--------------------|
| 가해경험 없음  | 1.91 | .98  | 228 | F=6.568<br>P=.0015 |
| 1- 2개 가해 | 1.98 | .99  | 251 |                    |
| 3-10개 가해 | 2.30 | 1.07 | 130 |                    |